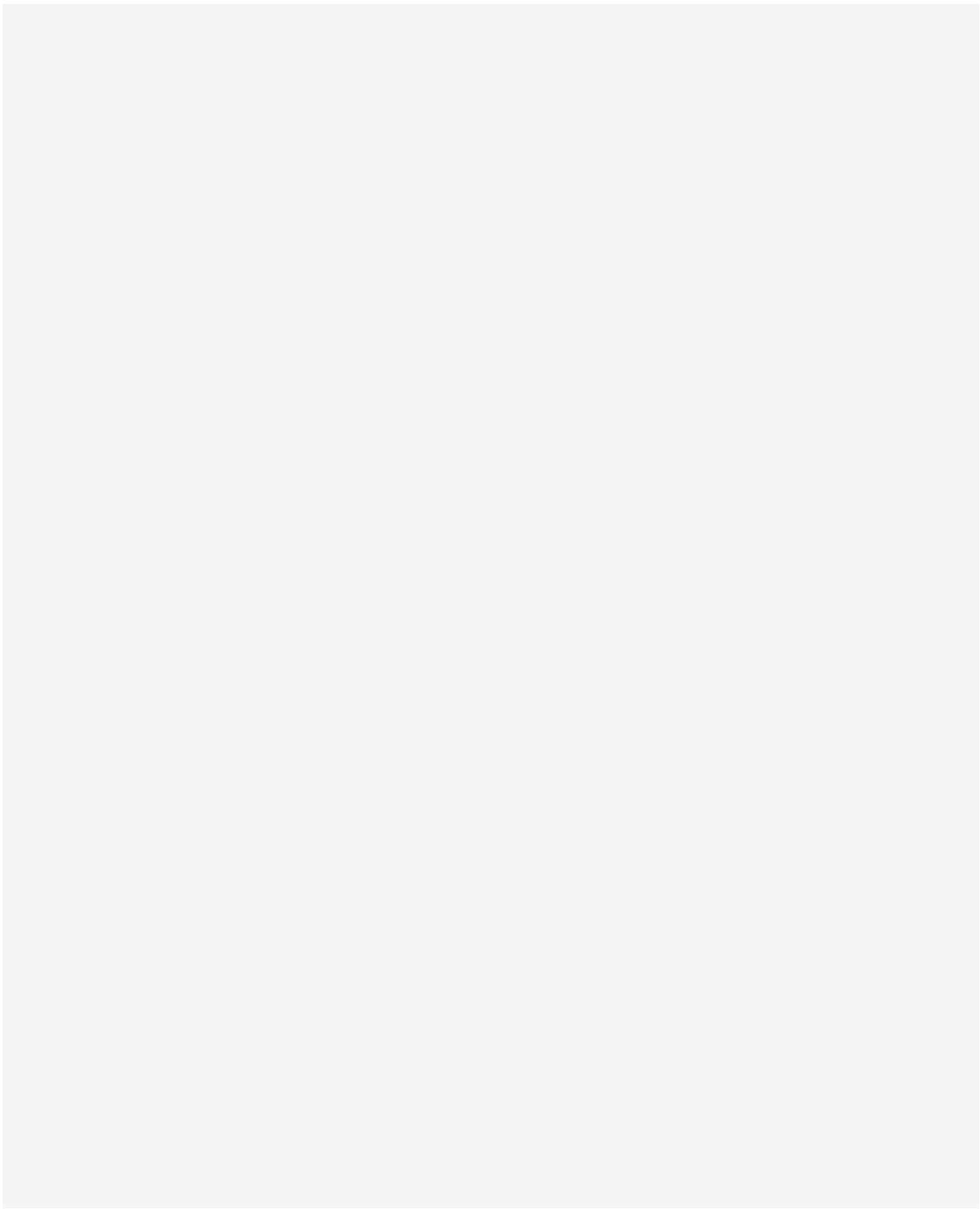


# Coaching

● 2020 DECEMBER Vol.36

coaching festival

온/오프라인으로 함께 한  
2020 대한민국  
코칭컨퍼스티벌!



# “생동”

메마른 향내가 진동하네요  
성냥개비 그으면  
타닥타닥 불살라질 만큼

생명의 기운 가문 채  
당신은 아주 오랫동안  
여름 한낮을 견디고 있었군요

지난 가을  
포도송이 땡글땡글 열리우고  
복숭아 분홍빛 어리울 적에  
나는 당신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예요  
당신의 시들해진 혈관을 따라  
감동없는 심장을 적시고  
기대없는 입술에 물빛으로 스며들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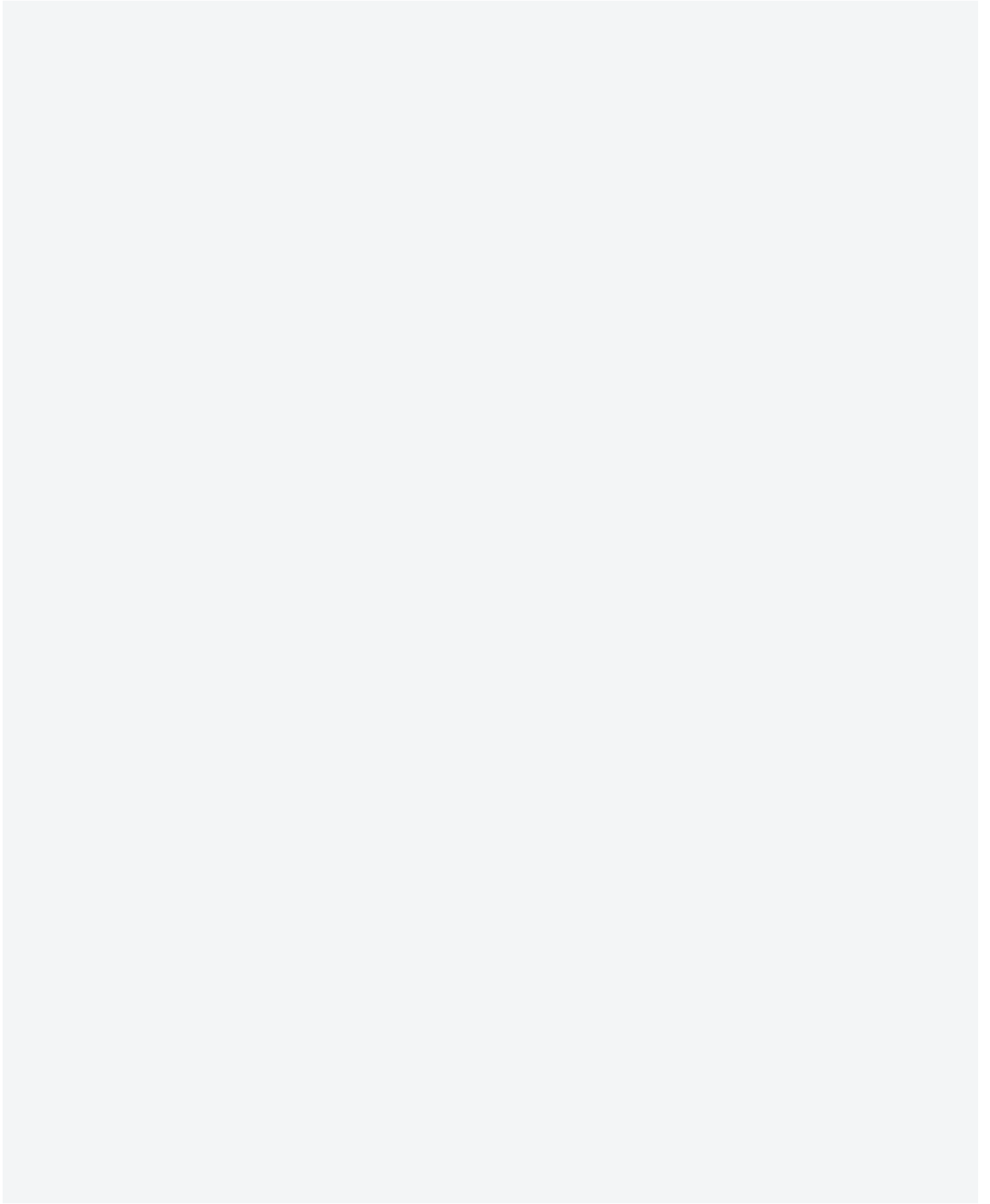
오는 가을엔  
당신이 가진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빛나볼 거예요.

### 전선영

現 한국코치협회 인증코치(KPC)  
現 주와독서심리코칭 소장  
現 한국독서문화협회 대표  
現 한국문인 등단문인

한국문인 신인작가상  
울목시민문학상  
저서 <주와> 시집







# Coaching

## CONTENTS

2020 DECEMBER VOL. 36

### PEOPLE INTERVIEW

- 02 인사말\_ 코치란 영원한 구도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 04 인터뷰\_ 2020 대한민국코칭컨퍼런스 '온택트'를 직접 경험하다
- 10 coaching committee\_ 한국 속 코칭, 더 견고한 발걸음을 위하여. 국가공인자격증추진검토위원회

### ZOOM IN ISSUE

- 14 coaching issue inside\_ 코칭의 실재감에 대하여
- 16 coaching column\_ 1인기업 코치로 살아남기\_ 시대의 흐름은 코칭
- 18 coaching issue inside\_ 코칭하는 설레임
- 24 coaching issue inside\_ 나눔가치&감정전환(ETC)코칭의만남

### FAREWELL 2020

- 20 coaching letter\_ 2020년을 보내며 협회원들에게한마디
- 22 vision of self coaching\_ 2021년 코치로서 나의 꿈과 목표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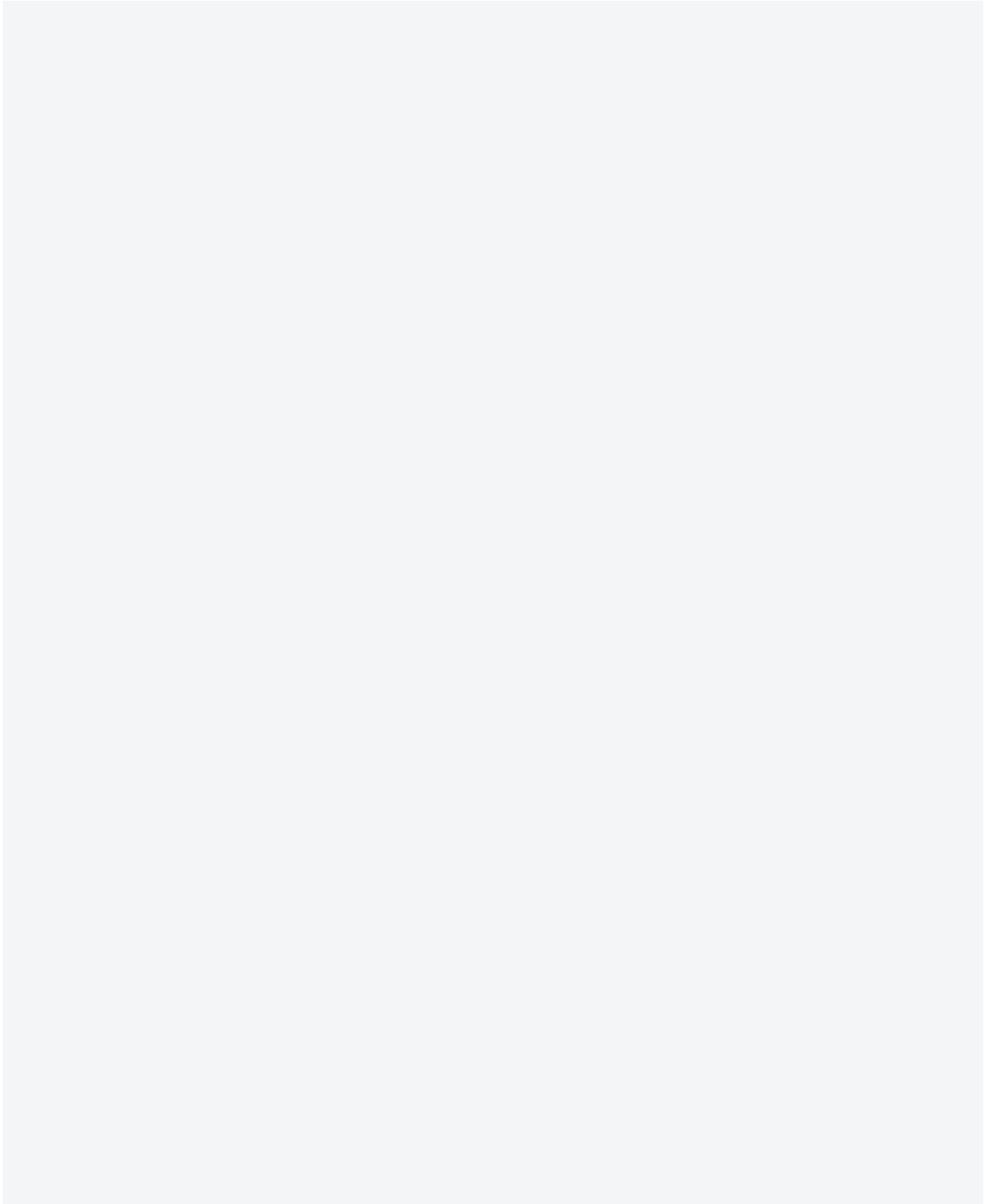


06



08

(사)한국코치협회 협회지 <Coaching> 2020년 December (통권 제36호) 발행처 (사)한국코치협회(02-563-8798, www.kcoach.or.kr)  
 발행일 2020년 12월 10일 발행인 강용수 편집인 김철 편집장 김셋별 디자인 옛지피앤디



people interview

# “코치란 영원한 구도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누구보다 치열하고 뜨겁게 2020년을 보낸 HMM(구 현대상선) 배재훈대표  
코칭에 대한 솔직 담백한 이야기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코칭의 방향성에 관한 의견  
마음에 불을 지피는 열정이 담긴 이야기!

글 이아련  
사진 김철(한국코치협회 이사/홍보위원회 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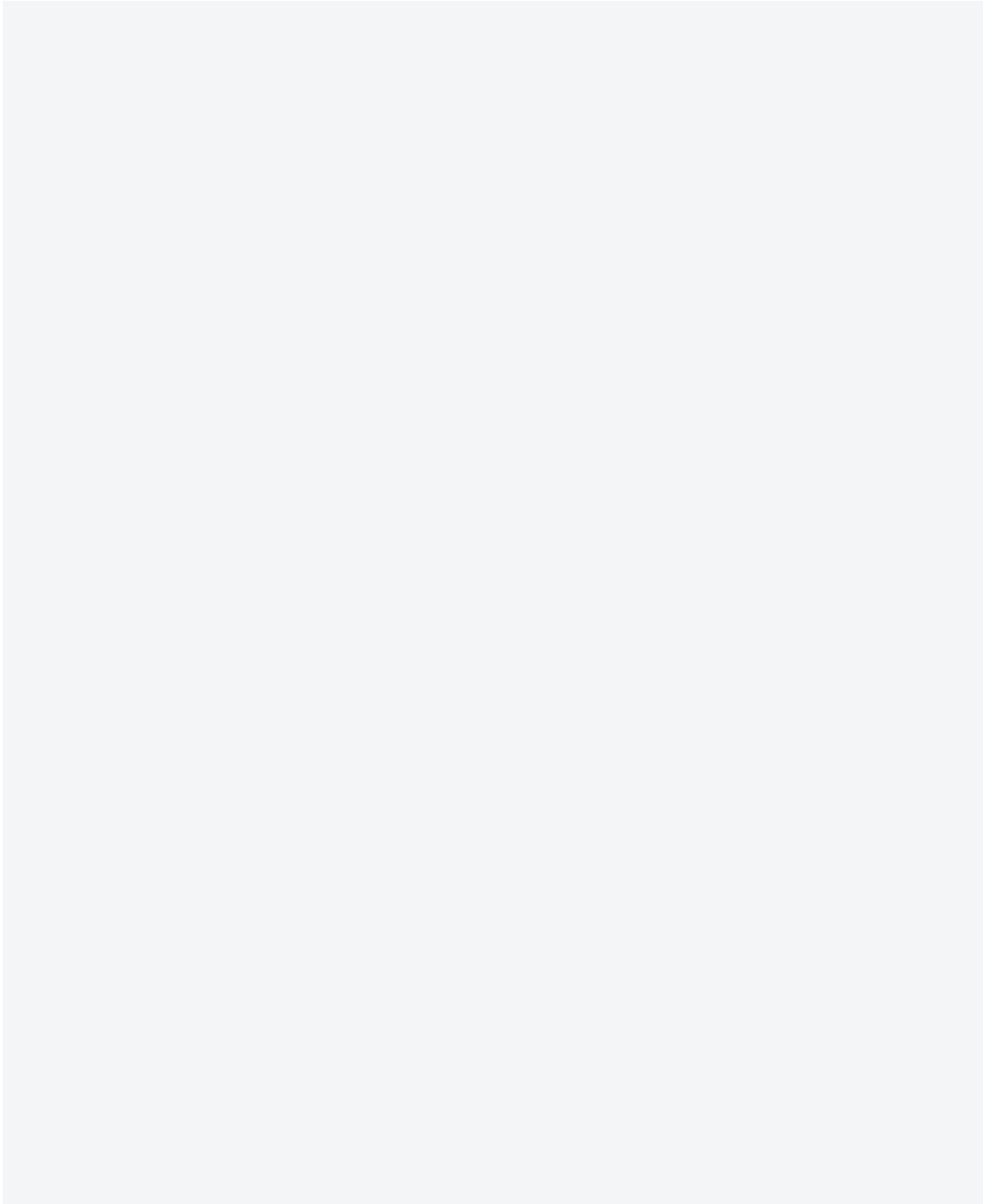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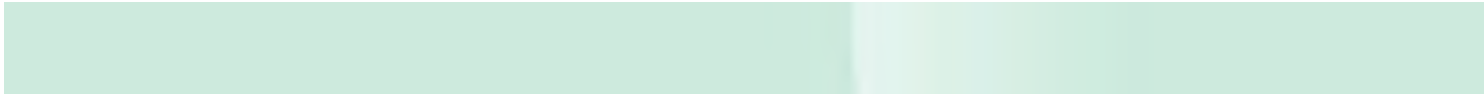
를 많이 양성했고, 교육형식의 코칭세션을 팀장 중심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또 현재, 팀장급 10명이 코치 인증을 받았고, 추가로 인증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많은 인원이 연습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 2021년은 어떤 새로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저는 코칭이란 게 그제 개인이든 회사든 남을 도와주고 또 자기도 성장발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 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 가장 우선되는 것은 자기의 특정분야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회사 임원이나 관리자 이런 게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상담심리학을 전공하고 코칭을 하는 사람들도 그런 분야에 학습과 연구를 계속해야 돼요. 또 하나는 액션러닝같은 툴을 도입해서 성과를 내는 방식을 연습하는 겁니다. 많은 코치님들이 코칭을 혹시나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들어요. 절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컨설팅도 있고 멘토도 있고 티칭도 있고 다양하게 있다는 것은 코칭이 만병통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직의 성과를 내는 데 코칭만 가지고 다 한다? 그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코치로서 아이덴티티가 문제가 되면 협업도 가능해요. 각 전문분야에 대한 확신이나 지식이 없을 경우에는 다양한 분야의 코치들이 함께해야 더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2020년 한 해를 보내면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이 있었는 지 말씀해주세요.

우선 회사 대표이니까요, 올해 2분기에 저희들이 21분기만에 처음 흑자 전환을 했고요, 만약 연말까지 쭉 다 합친 게 이제 흑자가 나면 10년만에 연간 흑자로 전환하게 됩니다.  
두번째는 사내코칭제도를 확립하고 조직문화로 제대로 자리잡도록 기틀을 만든 것입니다. 우선 사내 코치





### 한국 코치협회의 방향성, 코치들의 방향성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코치의 방향성은 코칭 문화가 보급되고, 코치들이 코칭을 활용하여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존하는 코칭 펌에서 코치들이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안과 방향에 대해서도 알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젠 ‘양면의 칼’ 느낌이 있죠. 코칭 펌도 대형펌이 있고 소형펌이 있는데 소형 펌들은 비교적 저렴하게 코칭 기회를 만드시지 않습니까? 대형 펌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기회를 만들기가 힘들어요. 코칭 펌은 정말 몇몇을 제외하고는 비즈니스를 연계해 주기보다는 코칭 교육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럼 코칭만 계속 시켜주고 그들에게는 기회가 없는데, 결국 어떻게 할 거냐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코칭은 코치가 코칭을 이용하여 수입을 얻을 때 확산된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코칭이 더 이상 10회, 5회가 아니라 이게 좀 장기간 6개월 1년단위로 하면서 성과와 연결되는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인코칭은 커리어 코칭으로 함께해야되지 않겠나 하고요. 코칭이라는 것은 서로가 아주 건강한 상태에서 발전을 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된다고 생각해요. 성과와 발전을 보기 위해서는 일회성이나 5회기 등이 아니라 장기간 진행되어야죠.

### 대표님의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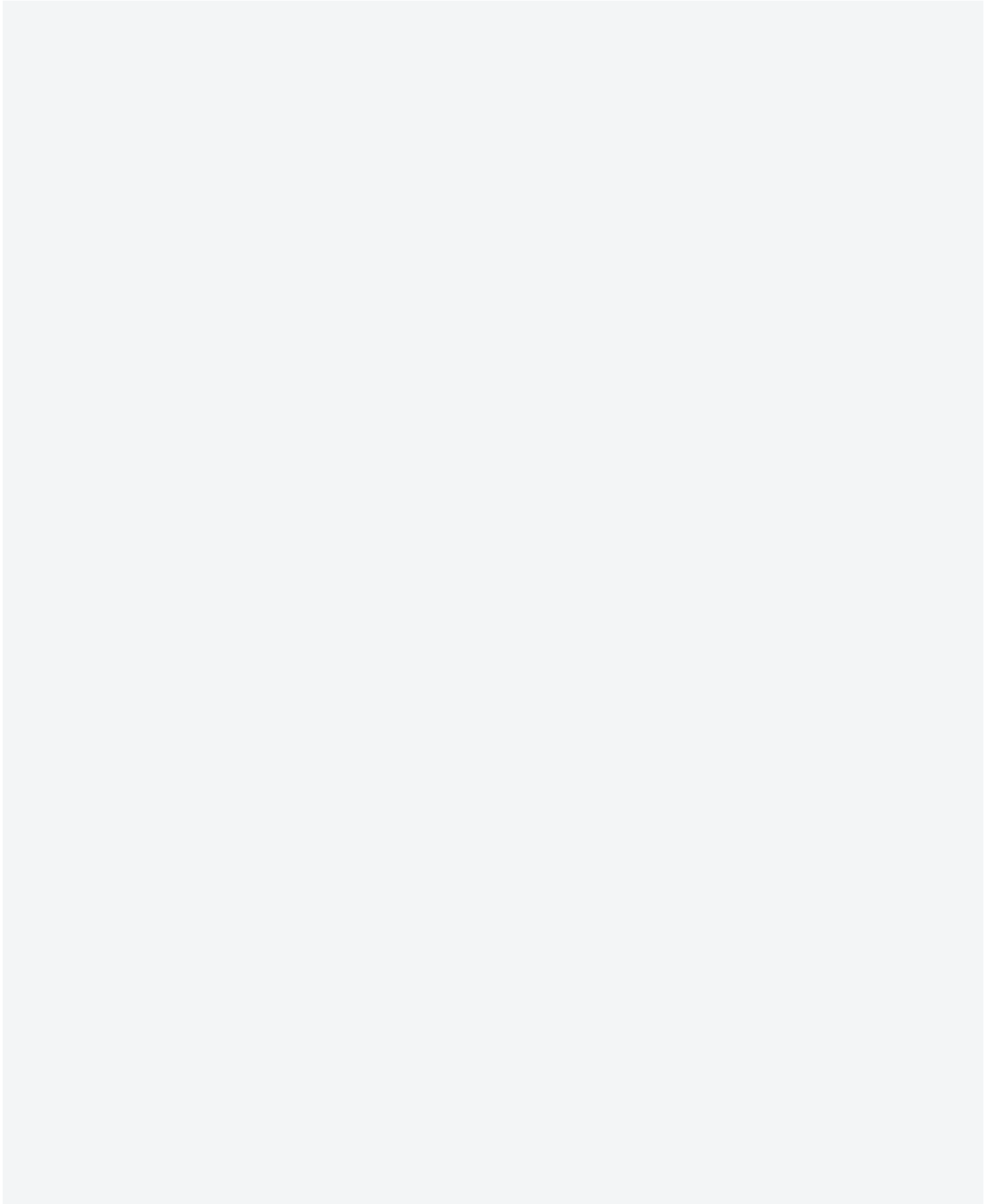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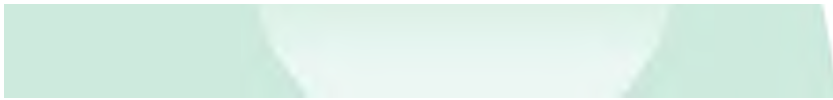
HMM이 변화하는 환경에 제대로 자리 잡을 때까지 기여할 계획입니다. 제가 현직을 은퇴하고 나서는 지금 코로나나 이런 변화상황에서 적응 못하고 힘들어하는 중소기업들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만들어주는데, 은퇴해 있는 역량있는 분들과 함께 좀 기여할 수 있는 일을 마련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끝으로 (사)한국코치협회와 코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인터뷰에서 ‘코치란 영원한 구도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코칭을 하다보니 자기도 계속 배워야하고, 끝이 없겠더라고요. 저는 시간이 허락한다면, 심리학도 상담학도 배워두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도자의 길을 간다는 마인드로 남을 코칭하면서, 아직 완성도 되지 않았는데, 남을 코칭한다고 나선다면, 조금 아이러니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코칭대화는 구조자체가 고객을 한발자국이라도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것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구도를 한다고 자기완성만 계속해서야, 남에게 유익한 일을 할 수 없을테니까요. 구도자가 어떤 진리를 찾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전하면서 영향력이 커지는 것처럼, 코칭도 자신의 완성을 위해 노력하면서 또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두 가지는 닮은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치는 계속해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정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 대한민국 코칭컨페스티벌 말말말

홍보위원회가 한국코치협회의 가장 큰 행사, 지난 11월 6일 개최한 대한민국 코칭컨페스티벌(이하 코컨페)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생생한 스케치를 진행했습니다. 발표순서를 기다리는 발표자코치님들과 강용수 회장이 전하는 REVIEW

글 진나하/김삿별(홍보위원회 편집국장/KPC 인증코치)

사진 진나하(홍보위원회 마케팅2국장/KAC 인증코치)

## Q1 대한민국 코칭컨페스티벌에 온라인으로 참여한 약 1000여명의 코치님들에게 어떠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나요?



강용수

이번 코컨페는 언택트 시대에 최적화된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행사가 언택트 시대의 환경에 코치들이 어떠한 역량을 발휘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코칭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전달하는 역할의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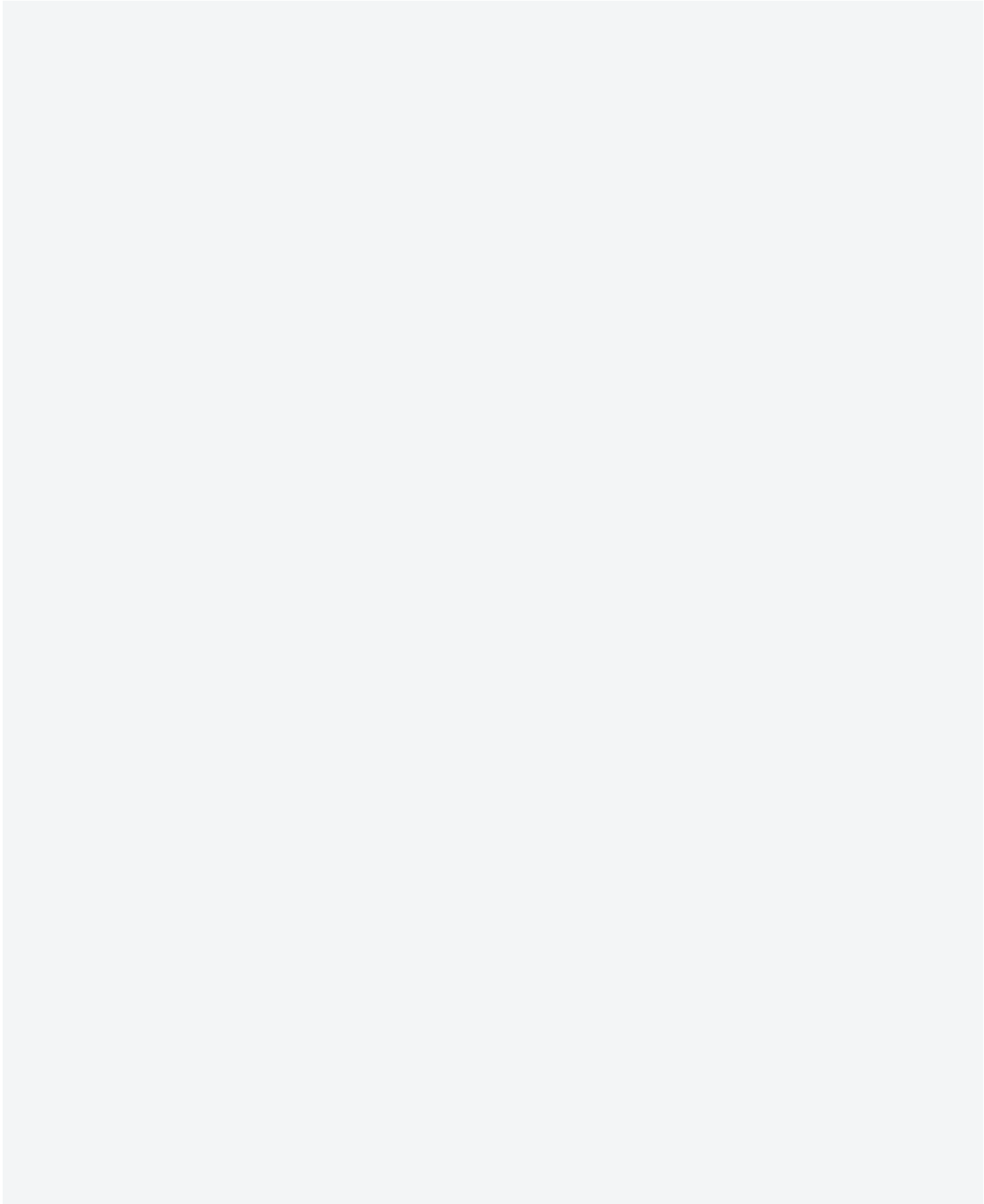
고현숙

코컨페는 원래 지난 1년 동안 코치들이 어떻게 지내왔는지, 어떤 활동과 성과가 있는지를 공유하고 복돋는 시간입니다. 코치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배우는 시간이죠. 대면으로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더욱 더 넓게 많이 볼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치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더 많은 것을 배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박정영

코치들을 위한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코치들이 전문코치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 비전을 가지고 공감하고 앞으로 나아가자 하는 설렘과 열정을 느꼈으면 합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더욱더 그런걸 느끼고 싶어요 :) 우리가 코치라는 프로페셔널한 직업인들이니까 가슴 싶은 곳에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정말 더욱더 좋은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비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재훈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2020 코컨페! 지방에 계신 분들이 이런 행사에 참여하기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을 계기로 다양한 지역에 계시는 코치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종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참가자분들과 코치님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상황에 관한 것을 받아 들이고 정확하게 그 상황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빠르게 도입하고 적응 하여 조금 다른 형태의 코컨페가 진행되는 것을 보며 지금 아주 중요한 모멘텀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미애

살아온 세월이 오래된 만큼 익숙함이 많아요. 솔직히 저는 코컨페를 하면 그동안 못 만난 코치님들을 만나고 정을 나누는 기대감이 있었다보니 이번 코컨페는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허전함... 아직 뭔가 시작되지 않고 비어있는 느낌이 사실 듭니다. 이제는 비대면으로 되어야 하는 상황이 많잖아요? 이제는 온라인이라는 매개체도 발달하고 있으니 모두가 익숙해지는 발걸음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최동하

올해 17년차 코컨페를 정말 축하하고 코칭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자축도 하고 싶습니다. 특히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모습이 참 멋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현직코치님 그리고 코칭지망생 여러분도 많은 기업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한 마음과 학습의 장이 되는 것 같아 뿌듯합니다. 오늘을 통해서 코치들은 자부심을 느끼고 새로운걸 배우고 코칭에 관심과 관계가 있는 분들도 코칭에 대한 영역과 활용도가 이렇게 넓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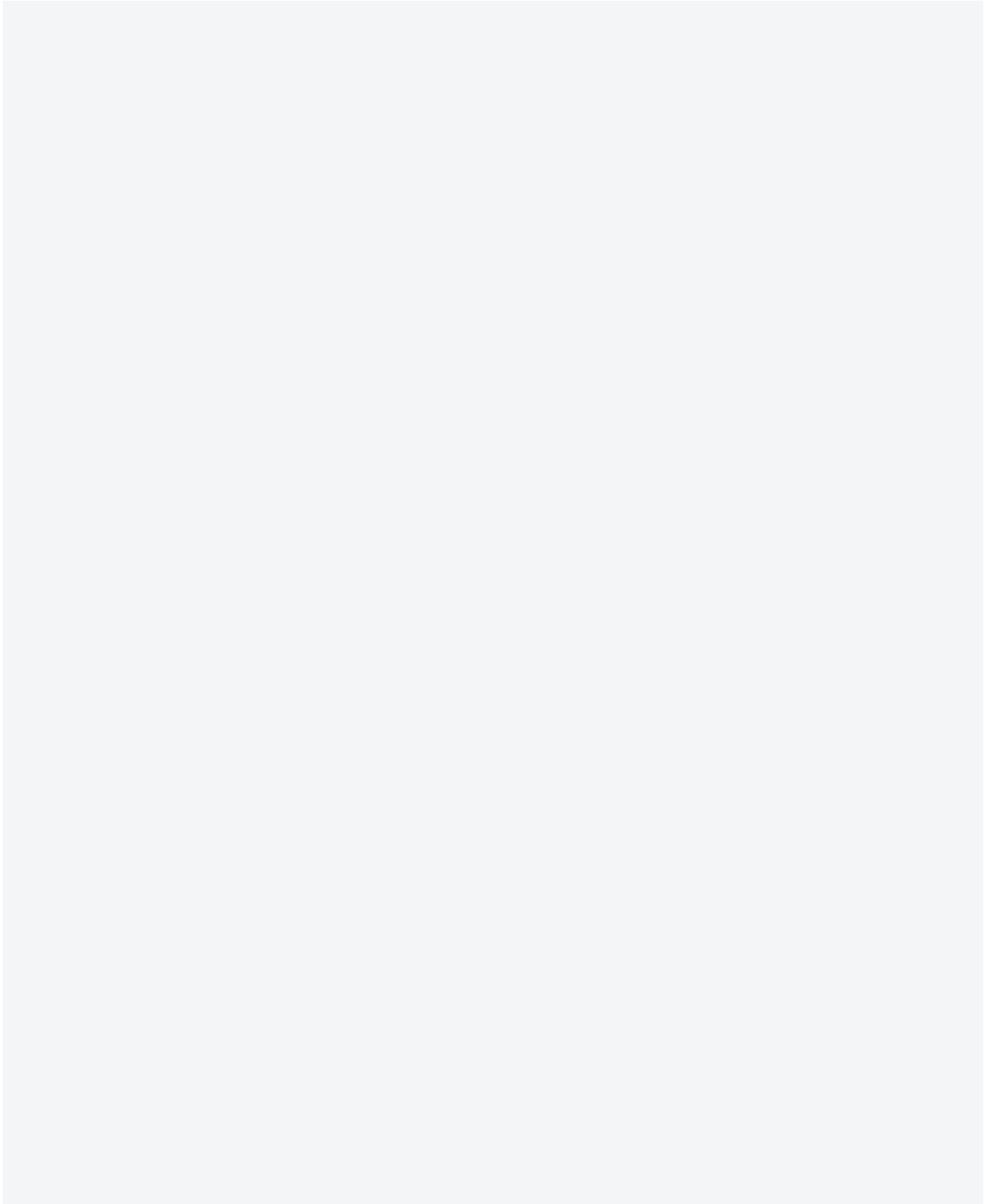
한숙기

정말 기대가 되게 많이 되었어요. 처음으로 시도된 온라인이기 때문에, 행사장에는 많은 분들이 와 계시지 않지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연결되어있을까, 무한으로 펼쳐지는 우주속에서 코칭페스티벌이 열리는 느낌이 들어요. 오히려 비 국지성이라고 할까? 로컬리티를 떠난다는것 코칭의 범 우주화의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리적으로 함께한다는 것 이상 에너지로 함께 한다는것. 코칭이라는것이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다룬다는 점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이것이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홍의숙

기업에서는 비대면이 점점활성화가 되고있고 강의형태로 진행되고있지만, 코치협회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한 챗터만 볼 수 있었지만 이젠 모든 컨텐츠를 즐길 수 있다는 점에 기대감을 갖고 좀더 긍정적으로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Q2 이전의 코컨페와 가장 많이 달라진 점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강용수

처음에 행사를 준비하면서 걱정도 많이 되고 우려가 되었지만, 현장에 직접 와보니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코치들은 평소에 온라인이나 비대면의 진행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더 많은 코치님들이 접속해서 참여중이어서 보람된 느낌이 듭니다.



고현숙

키노트부터 스피치 부터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코칭은 점차 변하고 있고, 시의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해야되나 늘 고민하게 됩니다. 변화해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edge있게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미래지향적인 변화의 방식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오늘의 코컨페가 가장 엣지있고 가장 발전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정영

메인홀을 직접 방문했는데, 정말 많은 것을 준비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혼란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차근차근 준비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셨구나 라는 열정과 맘이 느껴졌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배재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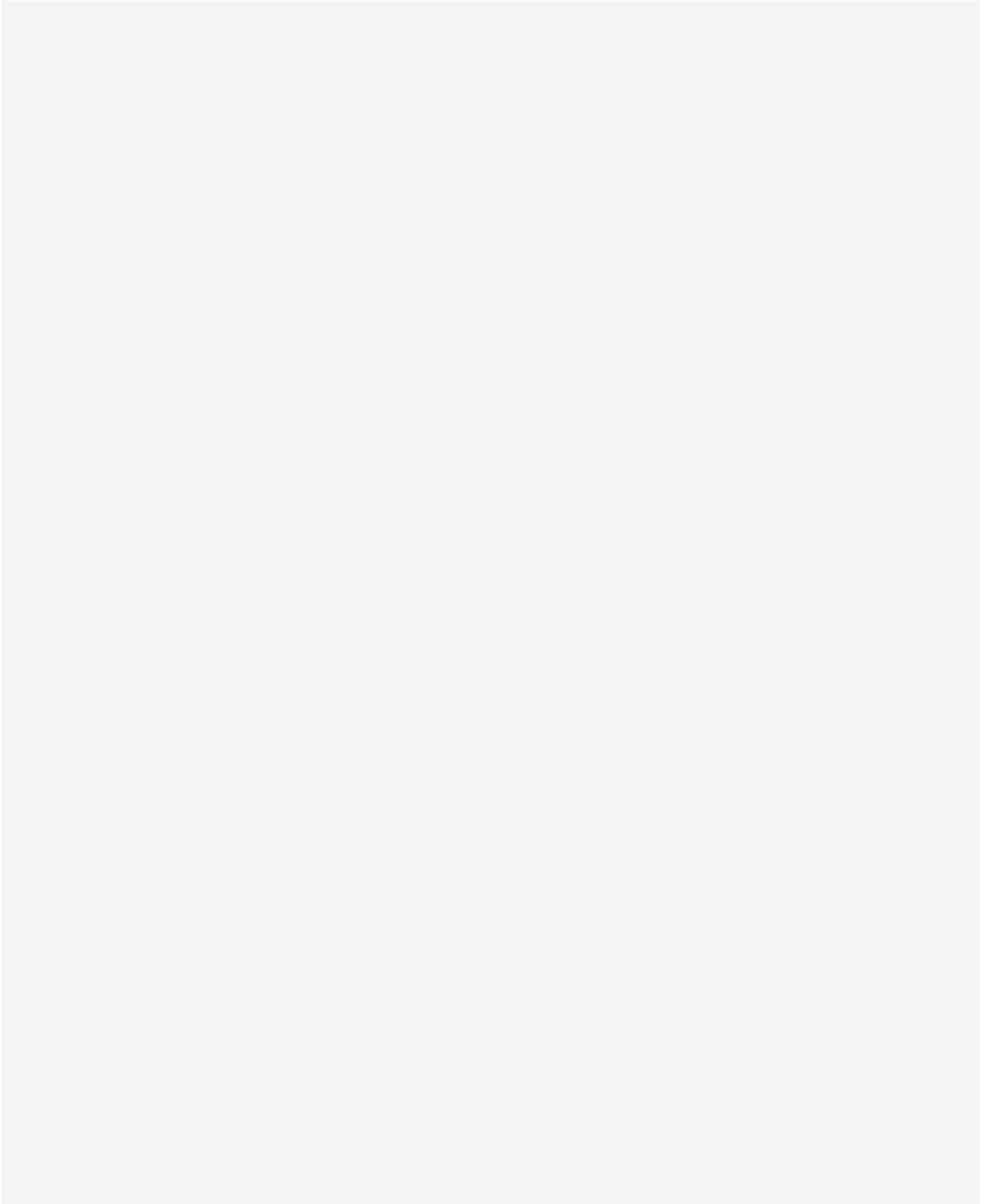
시간적이나 거리적으로 제약이 있으신 분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고 맞이하는 첫번째 코컨페인 만큼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코칭이라는 자체가 얼마나 의미 있게 다가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차미애

강의형태이다 보니 다양한 형태로 진행할 순 없지만, 참여하고 계신 코치님들께서 눈을 맞추고 하던 것들이 영상을 보고 하니 소통과 호흡이 어떻게 느끼고 계실까 하는 걱정이 들어요. 코치대회가 이름도 변경되고 코치들이 축제처럼 이전에는 아카데미 같은 느낌이라면 이제는 코치님들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변경된 점, 과연 이것이 될까 하는 걱정을 모두 잊게 새로운 장을 여는 느낌이 tv나 연예프로그램에서 보던 것들이 구현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최동하

비록 함께하고 정을 나누지 못함에 아쉬움이 있지만 이전에는 하루나 이틀로 행사가 끝났지만, 이번에는 약 8일정도 온라인으로 접속이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전에는 선택한 세션 외에 들을 수 없었지만, 이번에는 제한없이 모든 세션을 시간을 갖고 많이 들어볼 수 있다는 점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숙기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열심히 헌신적으로 했어요. 그 액티비티나 이 활동이나 이벤트들이 굉장히 다양해진 것 같아요. 시간이 충분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조합이 나오다보니 액티비티나 세션의 종류도 다양하고 거의 축제에 온 것 같습니다.



홍의숙

다양하게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더 전에는 코치님들 중심의 콘텐츠였다면, 비즈니스, 코칭팁, 기업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획의도가 있는 것 같아 보였다 직접 현장에서 와서 보니 정말 헌신적으로 장비부터 시작해서 테이블 하나하나에 모든 것을 담아내고자 노력했던 것이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 Q3 온/오프라인 행사 직접 방문해보니, 정말 잘 되고 있는 것과 아쉬운 점!



박정영

굉장히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정말 감동적이고 감격스럽습니다. 가장 큰 아쉬운점은 우리 코치님들이 함께 못한다는 사실이 아쉬워요. 2021년에도 이렇게 온/오프라인을 함께 할 수 있는 형태가 된다면 당일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길게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코치님들이 함께 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 저도 노력할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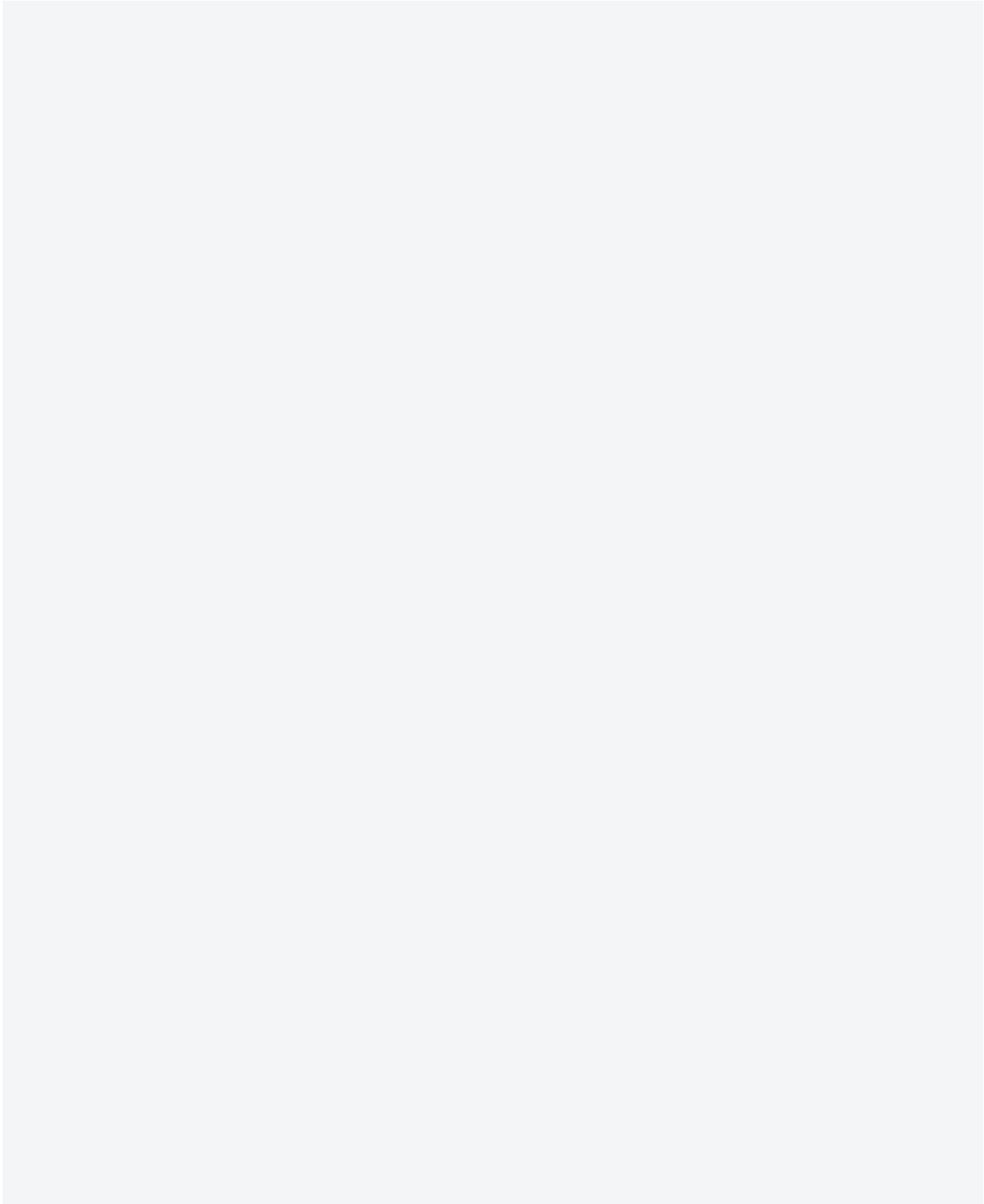
배재훈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느껴지는 직접적인 열기와 열정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 정말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현재 현장의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어서 '내가 멋있는 사람인가?'하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오늘 카메라가 정말 많아서 메이크업도 살짝 하고 왔습니다. ^^



이종욱

진행되는 프로세스 자체가 굉장히 체계적이고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많은 행사와 발표장을 다녔지만, 하나도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잘 이루어 지고있는 느낌이 듭니다. 참여자들이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의 형태를 이루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동하

한가지 아쉬운점은 그간 10년간 이곳에서 반가운분들을 만나고 스킨십 하면서 정을 나누던 장이 없어 졌다는 것이 아쉽지만 이젠 익숙해져야 하는 현실의 변화를 받아드리며 직접 스킨십 하지 않더라도 함께 관계를 맺는 민감함을 가져야 할거 같습니다.



홍익숙

사실 코컨페 현장에 오기 전부터 받은 문자나 전화 등이 한치에 오차도 없이 진행하기 위해 준비하시는 모습들이 보였고, 그동안 비대면 강의를 많이 다녀봤지만, 장비의 스케일이나 준비위원회 등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기 좋았습니다.

## Q4 2021년 코칭컨퍼런스에게 바란다!



강용수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상황이 많이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던 이런 상황에 대한 배움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아쉬운 점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직접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던 것이 없어지고 서로의 안부를 나누던 것을 못하게 되는 점은 아쉽습니다. 상황이 조금 더 좋아진다면 오프라인/온라인을 함께 하는 하이브리드 방향을 선택하여 과거의 단점을 개선하고 올해의 모습에서는 더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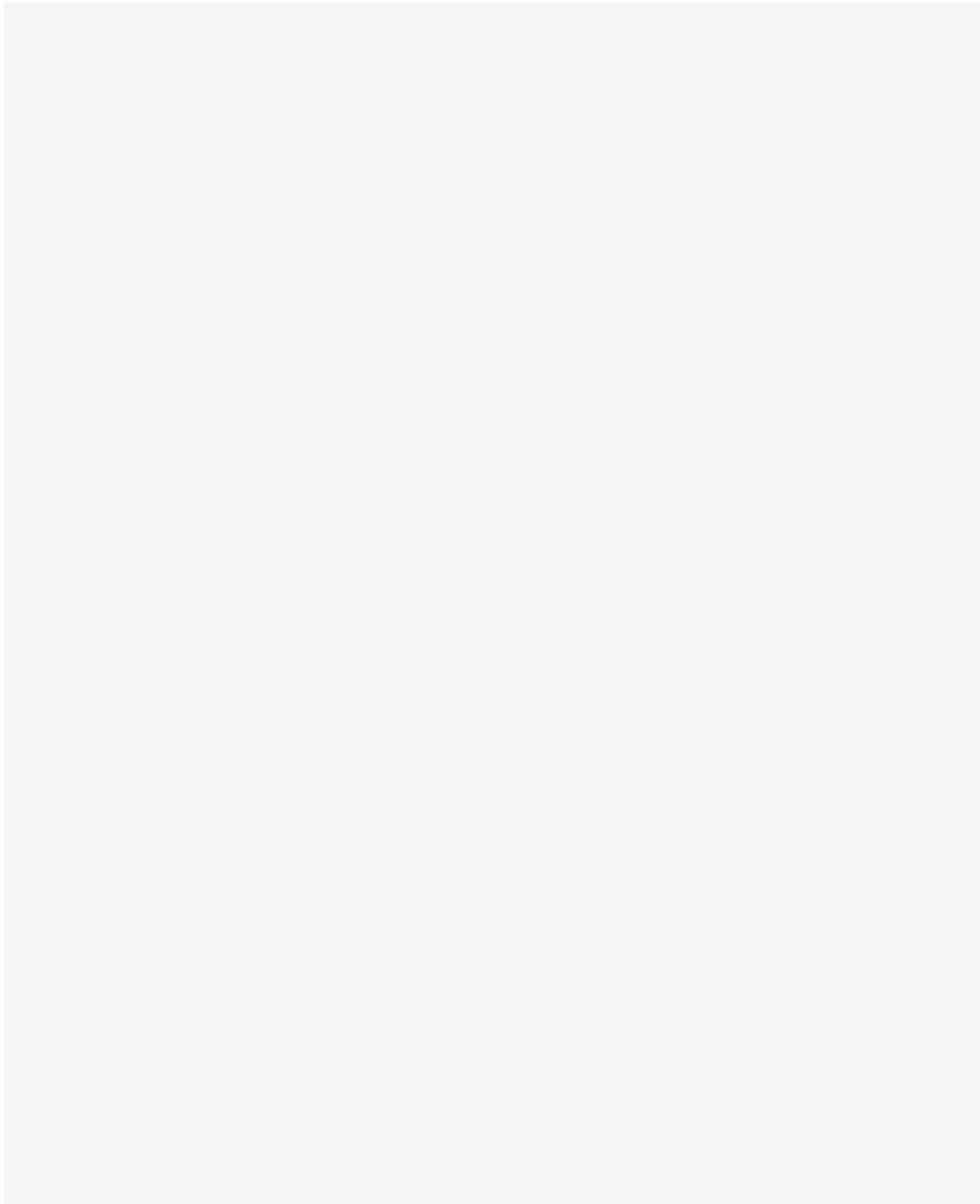
고현숙

2021년에도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더욱 더 적응된 모습으로 진행 할 수 있길 바라며, 현재보다 조금 더 축제적인 요소! 조금 더 신나는 분위기에서 즐길 거리가 많은 행사가 되길 바랍니다.



박정영

CIT코칭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비즈니스의 규모로는 기업코칭이 정말 큰 시장입니다. 계속해서 코칭의 대중화를 위한 대중화가 좀 더 활발하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치님들도 개인코칭 비즈니스를 좀 더 활발히 해서 1인 1코치 시대로 도약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길 바랍니다.





배재훈

2021년에는 코로나가 물러났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모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행사를 경험하며 시스템을 잘 갖추어서 폭넓게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재원 근무를 약 14년 넘게 한 경험이 있는데, 사실 코칭이 외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고 멋진 역량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해외로 뻗어 나가는 코컨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욱

사정이 조금 더 나아지면 더 좋을 것 같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시류가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이런 형태의 경험을 충분히 하고 나면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것이 피할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유튜브나 줌으로 만나는 것이 더 많은 분들을 만날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올해 보다는 조금 더 따뜻하고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길영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상반기 질문이 언제쯤 정상화가 되고 예전으로 돌아갈 것 같냐는 질문이었는데, 절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위기를 회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만 다양한 초이스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누군가 좋아하는 다양한 시도를 경험하고 나면 뒤로 퇴보하지 않기때문에, 발전하기 위한 하나로 학습으로 생각하고 이걸 수용하는 형태로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코칭이 다양한 미디어나 매체로 표현한다는 근원적인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차미애

내년에는 코로나는 없겠지만, 오프라인의 장점과 온라인의 장점을 합쳐서 멋진 것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코치대회의 장점과 액기스만 뽑아 변화와 혁신의 잔치가 되지않을까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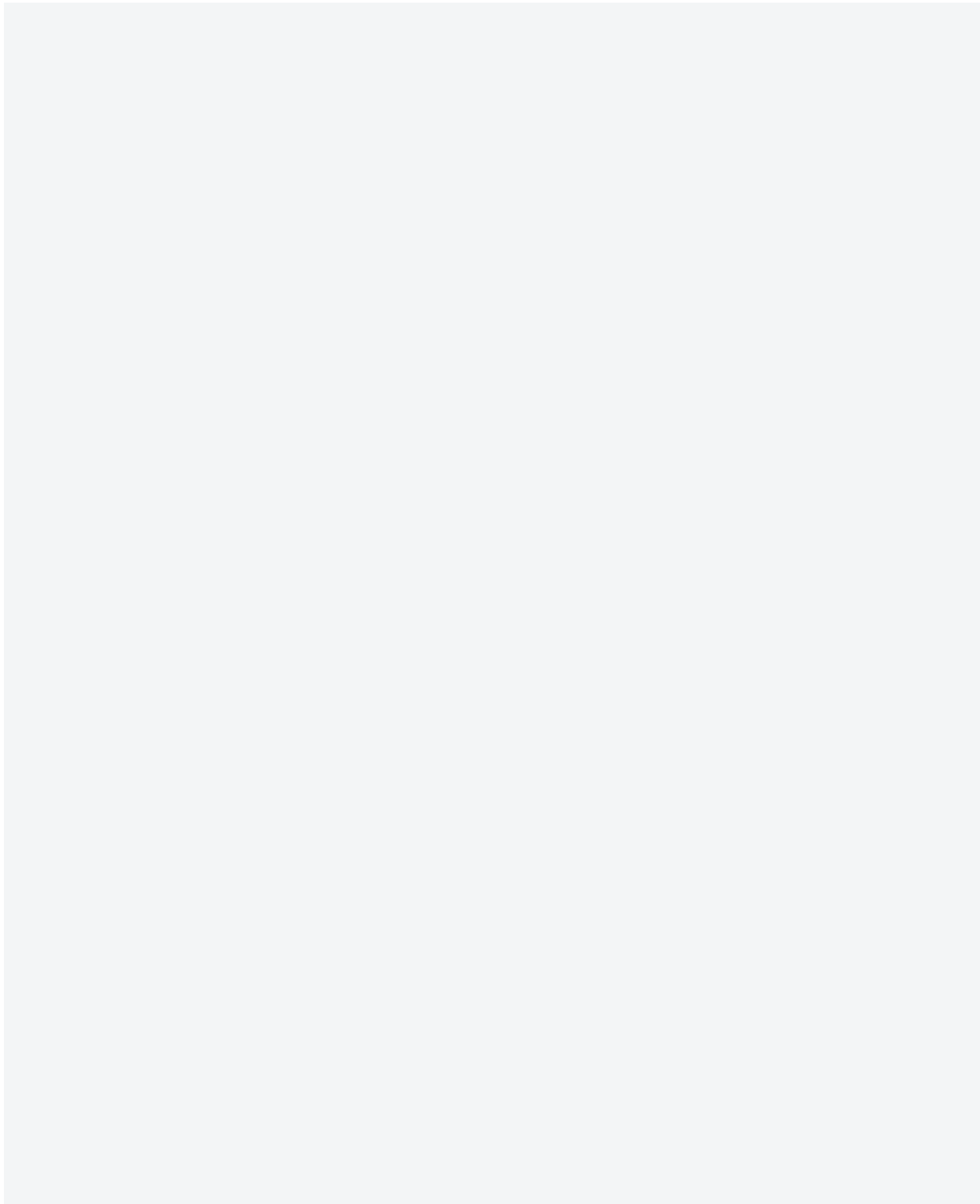
최동하

이번에 보니 온/오프의 융합은 필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당연히 코로나를 극복하고 직접 만나서 함께 하되 온라인을 함께 융합하여 코컨페 이후에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만남의 장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홍의숙

아무래도 저는 비즈니스코칭을 하는 기업이다보니 기업친화적인 콘텐츠, 기업들이 코칭에 대해 어떤것을 기대하는지 협회가 사전조사를 통해 걸맞는 콘텐츠를 준비한다면 또다른 양상을 보일것이라 생각합니다.



people interview

# 한국 속 코칭, 더 견고한 발걸음을 위하여

글 국가공인자격증추진검토위원회  
사진 국가공인자격증추진검토위원회



### 1. 국가공인자격증추진검토위원회 소개 / 인사말

안녕하세요. 국가공인자격증추진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한민수 코치입니다.

위원회는 2019년에 신설되어 2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2020년부터 위원회를 맡고 있으며, 2019년에 수고해주신 위원님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 및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의 인증코치자격을 국가공인자격화할 경우의 변화 및 장단점 등을 타당성, 활용성, 절차의 3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협회 및 이사회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하고 협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자료가 준비되면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서 공신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협회에서 큰 뜻을 가지고 추진·검토하는 사업을 통해서 회원님들의 무한한 성장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위원회에서 집중하고 있는 것은?

위원회에서는 위 글에서 잠시 언급해드린대로 (1)타당성 검토, (2)활용성 검토, (3)절차적 검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19년 국가공인자격화에 대한 설문에서 609명의 협회원들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2020년에는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후 활용성을 살펴보고, 절차적으로 필요한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3. 국가공인자격화를 희망하는 코치님들에게 요청하고 싶은 것은?

요청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협회 인증코치님들은 협회원으로서 정회원 및 인증코치로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1) 만약, 현재 자격증이 국가공인자격증으로 승격된다면, 다시 자격시험을 준비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2) 만약, 현재 자격증이 국가공인자격증으로 추진할 이유가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원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실 생각이신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3) 만약, 현재 자격증이 국가공인자격증으로 승격되어 국가공인자격증으로 재취득하게 된다면, 개인적으로 혹은 코칭비즈니스에 어떤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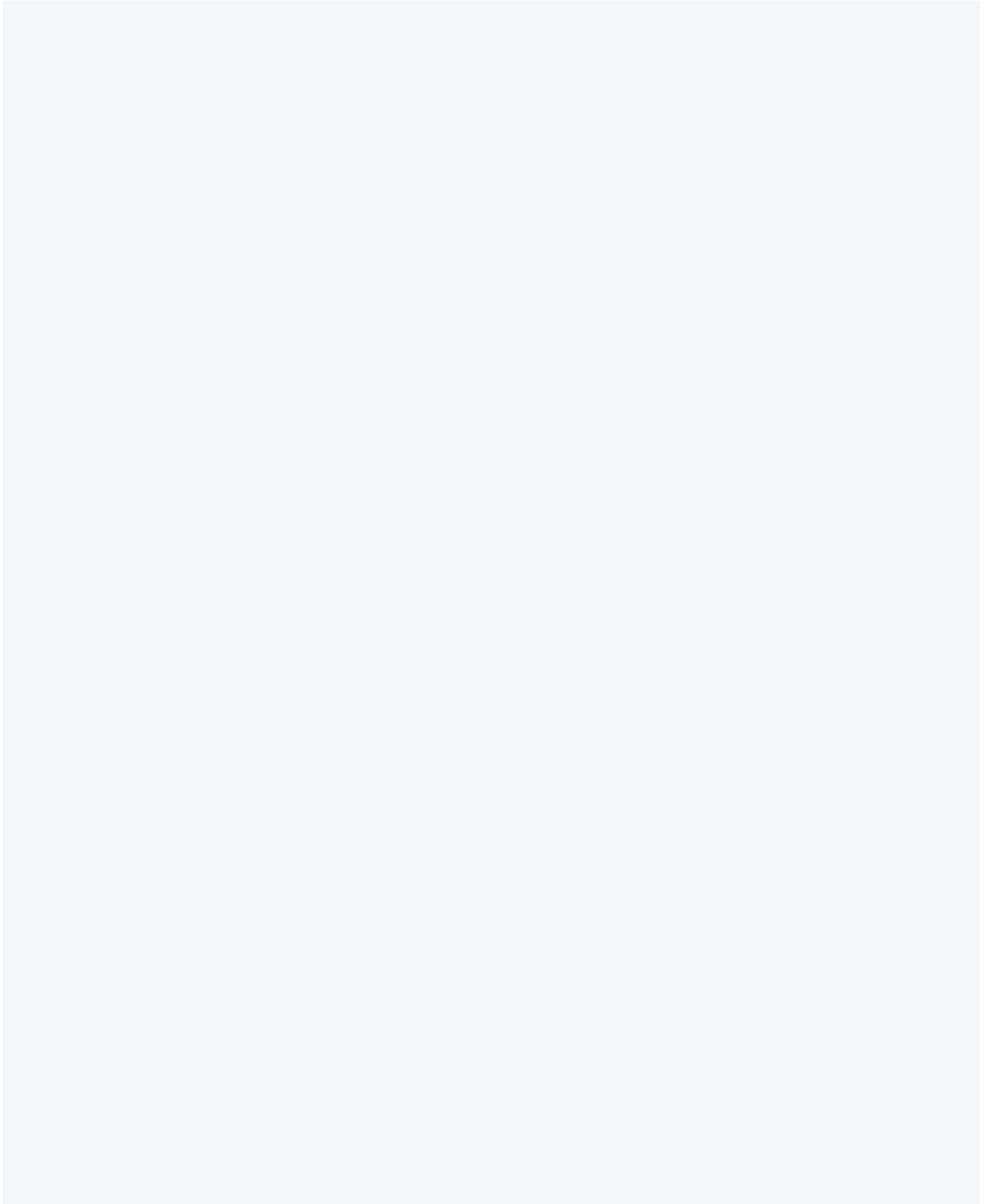
(4) 만약, 현재 자격증이 국가공인자격증으로 승격된다면,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일까요?

이와 같이 검토해야 할 사항은 살펴보면 볼수록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인증코치님들께 딱 한가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코칭다운 코치, 코칭다운 코칭으로 코칭답게, 인증코치답게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활동이 축적되면 사회와 국가가 코칭의 공공성을 더욱더 높여줄 것이며, 그렇게 되면 필요충분조건으로 코칭기본법(예시)이 제정되어 (사)한국코칭협회의 미션과 비전인 '코칭으로 국민행복지수를 높인다'를 완수하게 될 것입니다.

### 4. 국가공인자격증 추진이 이루어진다면, 코치님들이 준비해야 할 것은?

협회에서 추진하는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KCA 코칭역량 모델에 집중하여 코칭역량 개발 및 향상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동일한 자격이 있어도 진료를 잘하는 의사, 변호를 잘하는 변호사, 잘 가르치는 교사를 찾듯이, 정말 코칭답게 코칭하는 인증코치를 찾을 것입니다. ☺





## 국가공인자격증추진검토위원회 위원 코치님들의 간단한 소개



### 한민수 코치/위원장

안녕하세요. 호연지기입니다. 호연지기는 저의 '호(號)'이기도 하고, 코칭철학으로 적용하고 있는 코칭모델이기도 합니다. 인증코치 심사위원으로 코치육성에 호연지기 철학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에는 교육프로그램 설계 및 조직코칭 자문을 하고 있으며, 고객에게는 리더십 코칭으로 전략수립 및 관점 전환을 위한 코칭프레즌스를 위해 코칭프렌즈 커뮤니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코치협회에서는 회원들의 발전을 위해서 국가공인자격증추진검토위원회를 신설하였고, 저는 올해 소임을 맡아서 탁월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허영숙 코치/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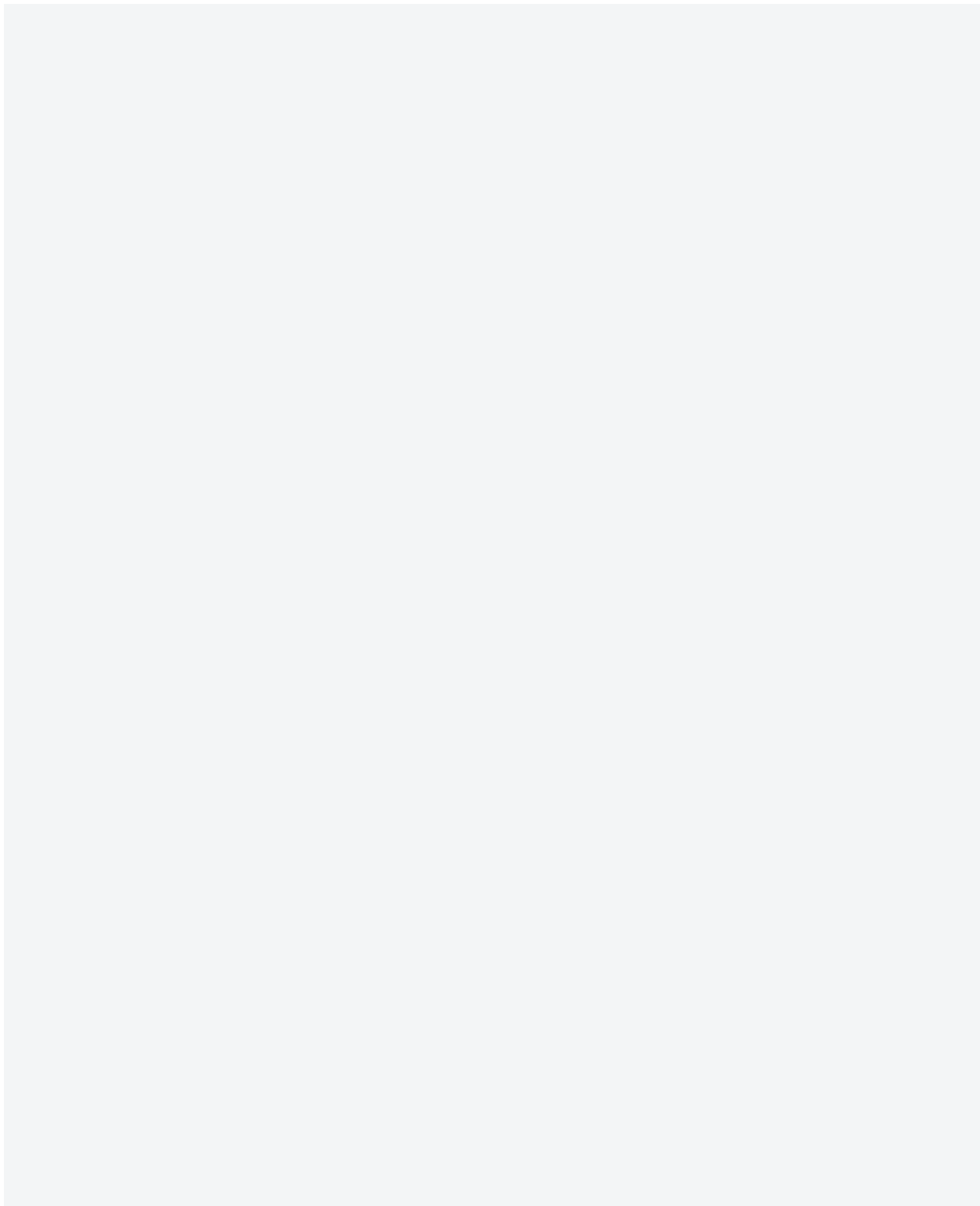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저는 코치로서 고객의 성장을 지원하는 일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저도 성장하고 있다는 걸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 개발, 직급별, 계층별 리더십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개발 및 진행 경험으로 검토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인증코치들의 활동기반을 탄탄하게 해주는 기초 작업에 경험을 나누고 있어서 기쁩니다. 협회가 수립하는 국가공인자격화 추진검토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역할을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소은 코치/간사

안녕하세요. 저는 동화세상에듀코에서 사내코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 직장인 H건설 건축자격 기술자 경험으로 국가공인인증자격 추진 관련하여 타 분야에 공인인증자격 취득 유경험자로 사례를 공유해 드렸습니다. 코치로 성장에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국가공인인증자격 추진 위원회 활동을 통해 작으나마 기여할 수 있어서 보람 있습니다. 국가공인인증자격 추진 위원회 활동을 통해 코칭의 미래와 열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 정희정 코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백석문화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며 2004년부터 전문코치로 활동하며 2011년 여성가족부와 2016년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 그리고 2020년에는 육군교육사령부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리더십과 코칭을 연계한 코칭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국가자격증 출제위원, 면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국가자격증추진검토위원회의 위원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 자격체제에 부합한지 검토하고 교육훈련과정과의 연계를 검토, 자격 간의 호환성 및 국제적 통용성의 확보에 부합한지 검토, 한국코치협회 및 회원의 실익 및 발전가능성 검토 등의 활동에 함께 동참하고자 국가자격증추진검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남상은 코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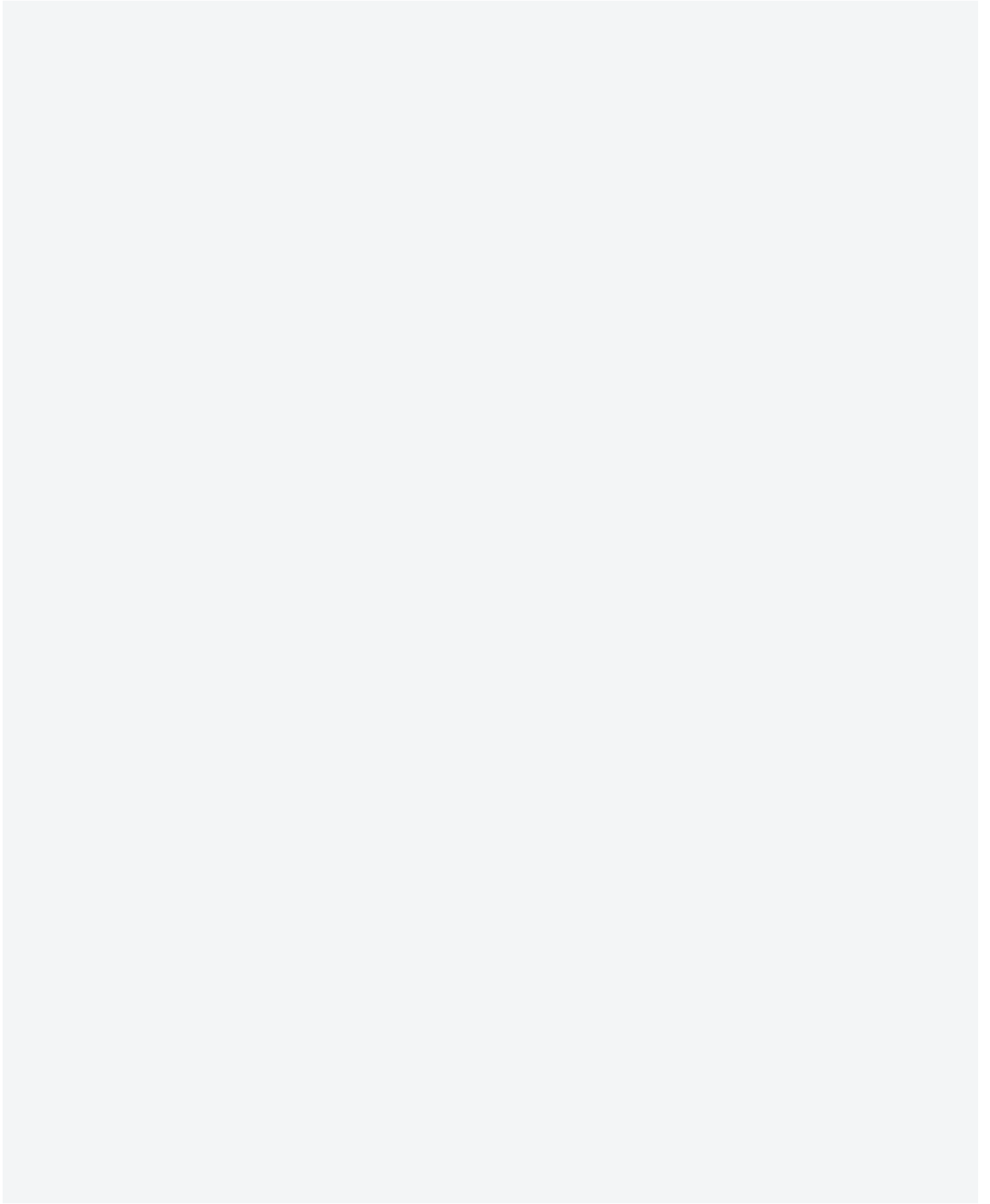
“당신은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코치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 2013년, 코치로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코치협회의 자격을 획득했을 뿐만 아니라, 대학원에 입학하였습니다. 숭실대학교의 객원코치로 근무하면서 한 학기에 수십명의 대학생들을 코칭하였으며, 숭실대학교 내 학사경고자들을 위한 코칭 프로그램인“동행”을 운영하였습니다. ‘소명을 세우는 사람’, ‘가정을 살리는 사람’, ‘회복을 꿈꾸는 사람’이라는 소명으로 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코칭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청소년 코칭, 부모코칭, 크리스천 코칭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개인 비즈니스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국가공인자격증추진검토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김희정 코치

유대인 교육법을 공부 하며 각 사람안에 있는 보석을 발견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일을 향해가고 있는 하브루타 경제코치이자 꿈 코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처음 코칭을 접했을 때, 너무나 설렘했습니다. 단지 질문의 틀을 배우기 위해 접했던 코칭수업에서 코칭은 사람을 빛나게 만드는 일임을 느꼈고, 평생 하고 싶은 일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 코칭이라는 이름은 너무나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고, 역할 또한 모호함을 보았습니다. 국가공인자격증추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부족하나마 그 검토과정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코치님들이 각 영역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의 감추인 빛을 찾도록 돕고,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송주연 코치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컨설팅과 코칭으로 조직과 개인의 성장을 돕고 있는 송주연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코칭의 효능을 누리기를 희망합니다.



### 이지현 코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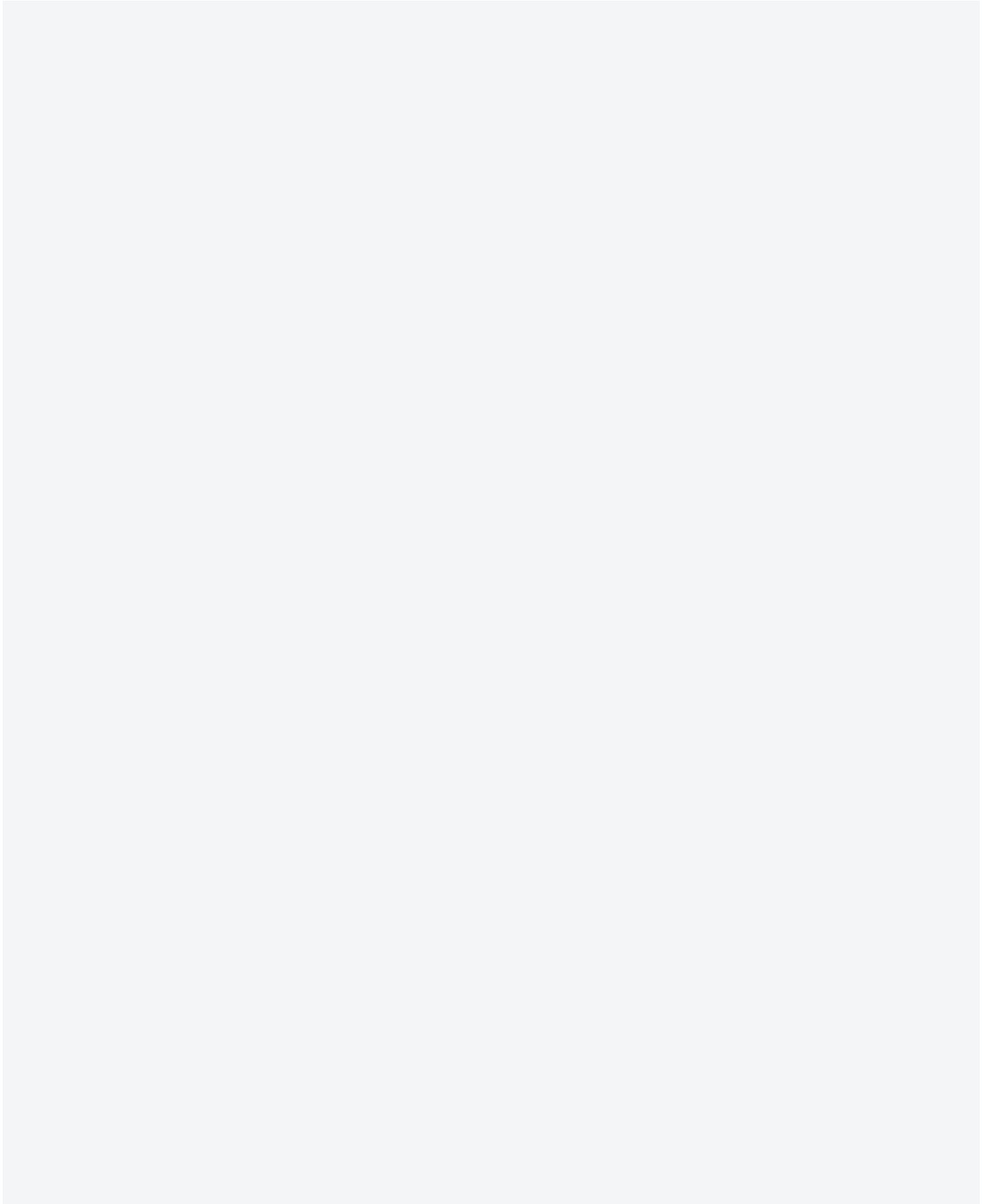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저는 코칭을 만나 삶이 바뀌었기에 코칭을 알리는데 누구보다 열심히 휴먼코칭엔컨설팅(주)대표이자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겸임교수입니다. 서울에서의 직장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인 부산에서 코치의 삶을 즐기고 있는 전문코치이자 컨설턴트, 느끼고 배운 걸 나누기 위해 짹짹 글을 쓰고, 쓴 글을 모아 책을 펴낸 작가이기도 한 프로 N잡러입니다. 코치자격증이 국가에서 공인하는 자격이 되어 더 많은 이들에게 바른 코칭이 널리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 민정아 코치

안녕하세요? 저는 조직과 개인이 스스로 다시 일어서고 날아올 수 있는 내면의 잠재력, 원천, 무한한 가능성을 일깨우는 코칭의 힘을 마음껏 실천하고 싶은 민정아입니다. 코칭으로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특히, COVID-19 상황에서 코치들이 각계각층에 많이 배치되어 우리나라가 더 건강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저는 기업에서의 오랜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공인자격증추진검토위원회에서 일조하게 되어 기쁘고, 이를 통해 우리 협회와 인증코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면 더욱 보람될 것입니다.





## zoom in issue



## 코치의 실재감(presence)에 관하여

글 신은희(한국코치협회 블로거기자단)

커리어코칭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 보니 하반기에는 특히 진로, 취업 관련 코칭 일정이 많습니다. 1년 전이었다면 각 대학의 교정에 방문하거나, 대학가의 상담실에서 얼굴보고 진행했을 텐데, 올해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화상회의의 시스템을 통해 하게 되었습니다.

전화로 주고받는 텔레코칭은 익숙해졌다지만, 화면을 꽉 채운 각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1:1 커리어코칭을 진행한다는 것이 시작 전부터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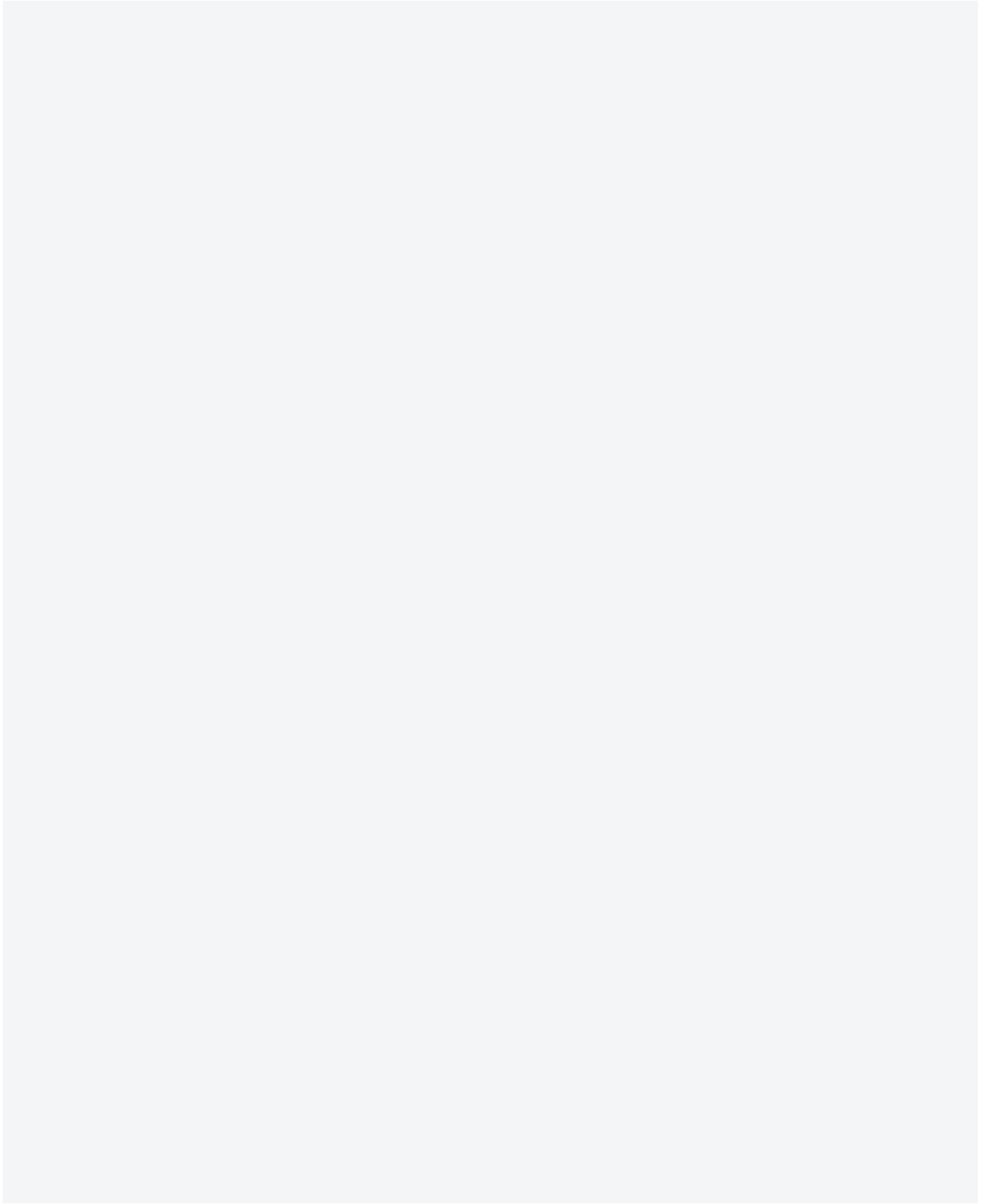
코칭 진행 시 손을 맞잡는다거나 토닥여주는 비언어적인 스킨십과 초반에 흥미를 끌어당길 수 있는 질문카드 등을 많이 사용했던 제게는 참 도전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다잡고 첫 번째 화상코칭을 시작했습니다. 서로가 거기 있다는 것은 알지만, 화면 속 상대방을

바라보면서도 실제로 상대가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기'는 쉽지 않습니다.

서로 멧쩍은 웃음을 짓다가 “올해 입학했는데, 캠퍼스 생활은 어떤가요?”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학교에 거의 가보지 못했고 집에서 수업을 듣는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은 코치이의 말에 공감하며 비로소 가까워진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수업을 대부분 온라인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 익숙했고 화상 코칭도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뒤이어 코칭을 잘 모른다는 그에게 제가 애정하는 코칭의 3가지 철학을 알려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해답은 모두 그 사람 내부에 있다’,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파트너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있는 것이고, 나는 너의 가능성을 믿는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꿈이 증발 된 느낌이어서 무기력하다고 말하는 코치이에게 “그럼 지금 현재 관심이 있나요? 있다면 두서없어도 되니 마음껏 이야기 해볼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그전까지 맥이 없던 그의 목소리에 텐션이 올라가고, 눈빛이 형형히 빛나는 것이 화면을 뚫고도 느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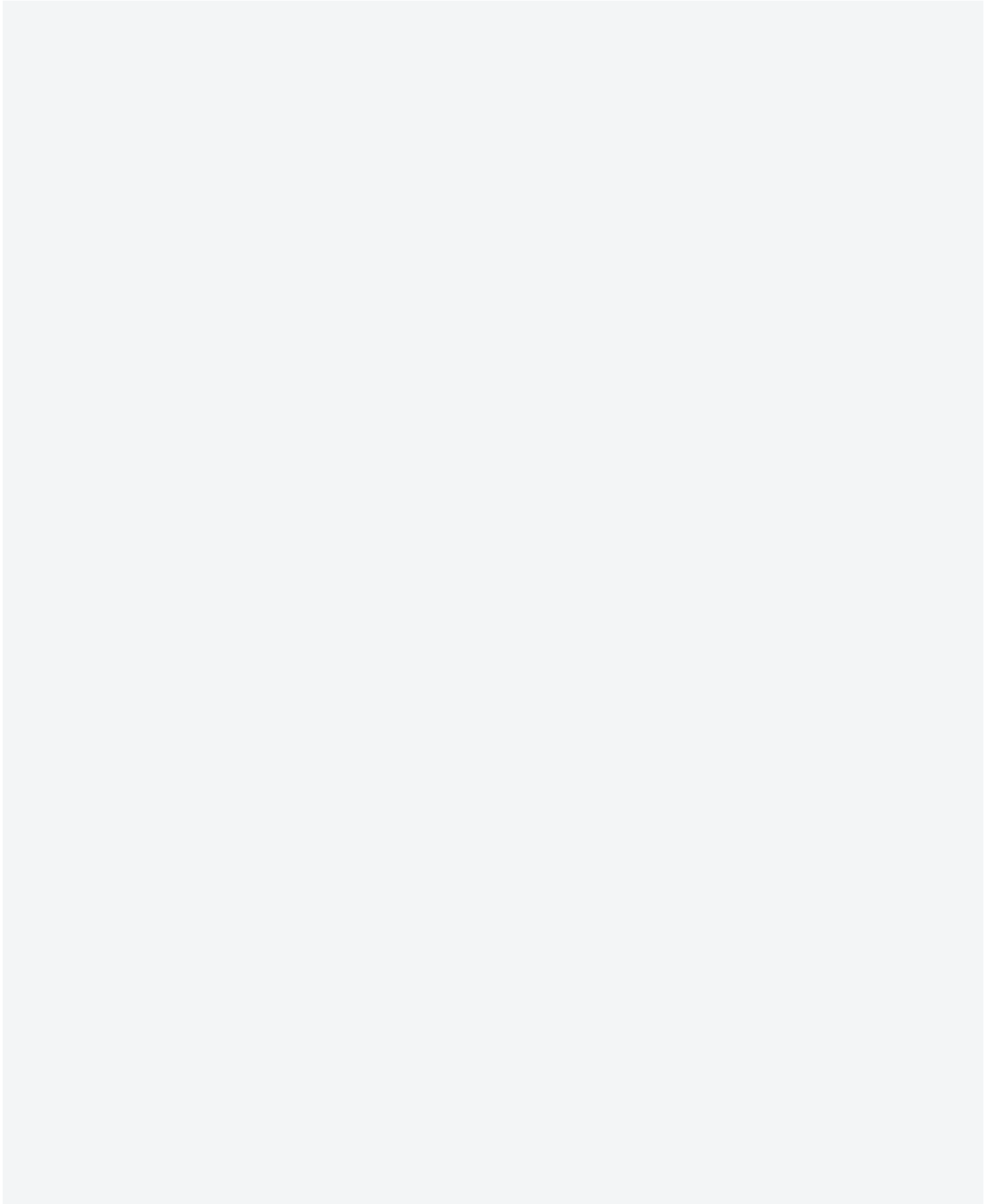
그런 모습을 보니 얼마 전 교사연수 때 들었던 ‘교수실재감(teaching presence)’이라는 개념이 떠올랐습니다. 교수실재감은 컴퓨터 기반 학습환경에서 교수자의 존재 및 교수적 도움에 대하여, 학습자가 자신이 잘 안내되고 있으며 언제라도 교수자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느끼는 정도를 의미합니다(Garrison et al, 2000). 비록 우리는 학습이 아니라 코칭 환경에서 만났지만 서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한 것만으로도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코칭에서도 프레즌스(presence)는 늘 중요합니다. 이는 국제코칭연맹(ICF)에서 언급한 코치의 핵심역량에도 잘 나와있습니다. 코칭 프레즌스는 ‘개방적이고 유연하며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고객과 즉각적인 관계를 만들어내고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즉, 어떤 환경에서든 코치로서 저는 코치이의 가능성을 믿고 그가 만들어내는 흐름에 따라 함께 춤추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마음도 한결 편안해졌고, 코칭 세션이 끝난 후 코치이로부터 이런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코치님과 대화하다 보니, 제가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껴졌어요.”

COVID-19로 인해 우리는 점차 서로의 존재감을 느낄 수 없는 고립된 환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빠르게 움직여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온라인상에서 활용하며 상대방의 관심을 끌어당깁니다. 누군가는 아직도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는 일상의 소중함에 대해 반추하며 마냥 서글퍼합니다. 하지만 저는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서로의 존재를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서로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상대를 보고 싶어합니다. 실재감이 ‘어딘가에 존재하는 느낌(Being there)’의 의미(Heeter, 1992) 한다면, 코치의 실재감(presence) 또한 코치이를 위해 ‘지금, 여기가 아니라 코치이가 있는 화면 속 거기’에 함께 머물러 주는 것 아닐까요? ©





## zoom in issue

디지털 시대, 무한의 가능성을 체감하는 지금

# 피보팅? 그로스 해킹? 디지털 시대의 흐름은 코칭으로 이어진다

단군 이래 가장 돈 벌기가 쉬운 시대라는 말이 떠도는 요즘.

그 어떤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코치들에게 더 큰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우리가 더욱 코칭에 집중하고 코칭을 활용해야 하는 이유.

글 정연택(한국코치협회 마케팅국장/KPC 인증코치)

디지털 세계의 잠재력에 대해서는 누구나 긍정하고 동의하지 만 이에 대해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라는 말은 디지털 세계 를 정말 잘 나타내는 말 중 하나입니다.

지금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우리의 생각보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시대입니다. 디지털이 활성화는 이전의 시장 원리와 다른 방식을 하나 만들어 냈습니다. 수요가 있어 공급 이 발생하는 원리가 아닌 공급을 통해 숨어있던 수요들을 여기 저기서 만들어 냈습니다.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한 먹방.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사업의 전 문가들은 이 먹방이라는 아이템이 전혀 사업의 도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먹방'이라는 사업 아이템을 가지 고 국가지원사업에서 몇 번이나 떨어진 유명 유튜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에 대해 궁금해하고, 스스로를 위해 배우고 성장하 는 것,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증 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꺼이 소비를 행하는 시대입니다.

한 개인의 일상을 궁금해하기도 하며 어린 아이들의 놀이를 흐 못하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을 잘 벌 수 있는 방법, 글을 잘 쓸 수 있는 방법, 영상 제작/ 편집을 할 수 있는 방법, 게임을 잘 할 수 있는 방법, 춤을 추는

방법, 집에서 혼자 놀 수 있는 방법 등등 다양 한 방법/노하우들을 알려주는 콘텐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들을 궁금해하고 즐기는 사람들 역시 많이 존재합니다.

이는 MZ세대\*의 문화와도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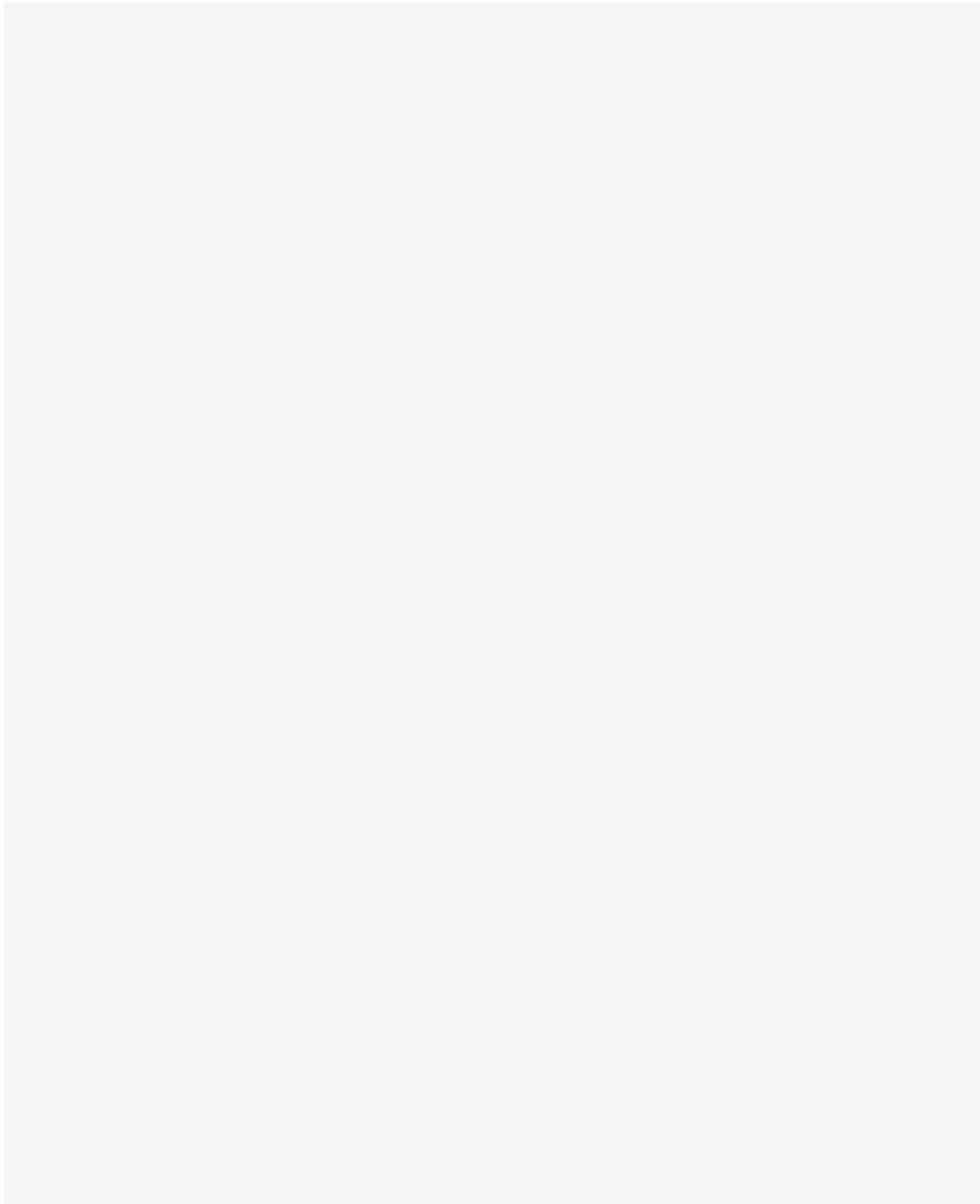
'내돈내산', '미닝아웃', '플렉스' 등의 단어들 이 나타내듯이 집단 보다 개인의 행복에, 상품보다는 경험을, 소유보다는 공유에 초점을 맞춘 MZ세대. 다양성과 개성을 추구하는 것을 당연하 고 또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개인이 원하는 것을 충족 시켜주고, 이루어 주는 것을 위해 소비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게 만드 는 바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코치 역시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며 변화할 줄 알아야 합니다. 2021년의 트렌드 키워드로 '축을 옮긴다'는 뜻을 가진 스포츠 용어인 피보팅(pivoting)이 등장했습니다.

가설을 세우고 지속적인 테스트를 하며 성장을 위해 방향성을 수시로 수정해나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스타트업 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분들에게는 필수적인 개념이며 아마 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샌드박스 등 빠른 시간에 급성장한

\*MZ세대 : 1980년대 초~199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 반~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Z세대를 아우르는 말





### 기업들의 비밀 무기이기도

한 그로스 해킹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은 코칭 그 자체라고 여길만큼 유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목표를 위해, 성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행동을 하고 그 과정들을 수정/변화하며 나아가는 것. 보다 빠르게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것. 성장하도록 하는 것. 무한한 가능성을 탐험하며 원하는 곳에 도달하는 것. 이 피보팅을 코치 스스로에게도, 고객에게도 잘 활용하는 것이 디지털 코치로서의 중요한 역량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코칭에 매력을 느껴 코칭으로, 코칭을 활용해서 수익을 얻는 것을 꿈꾸는 코치님들, 전문 코치, 프로 코치로서의 삶을 꿈꾸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역량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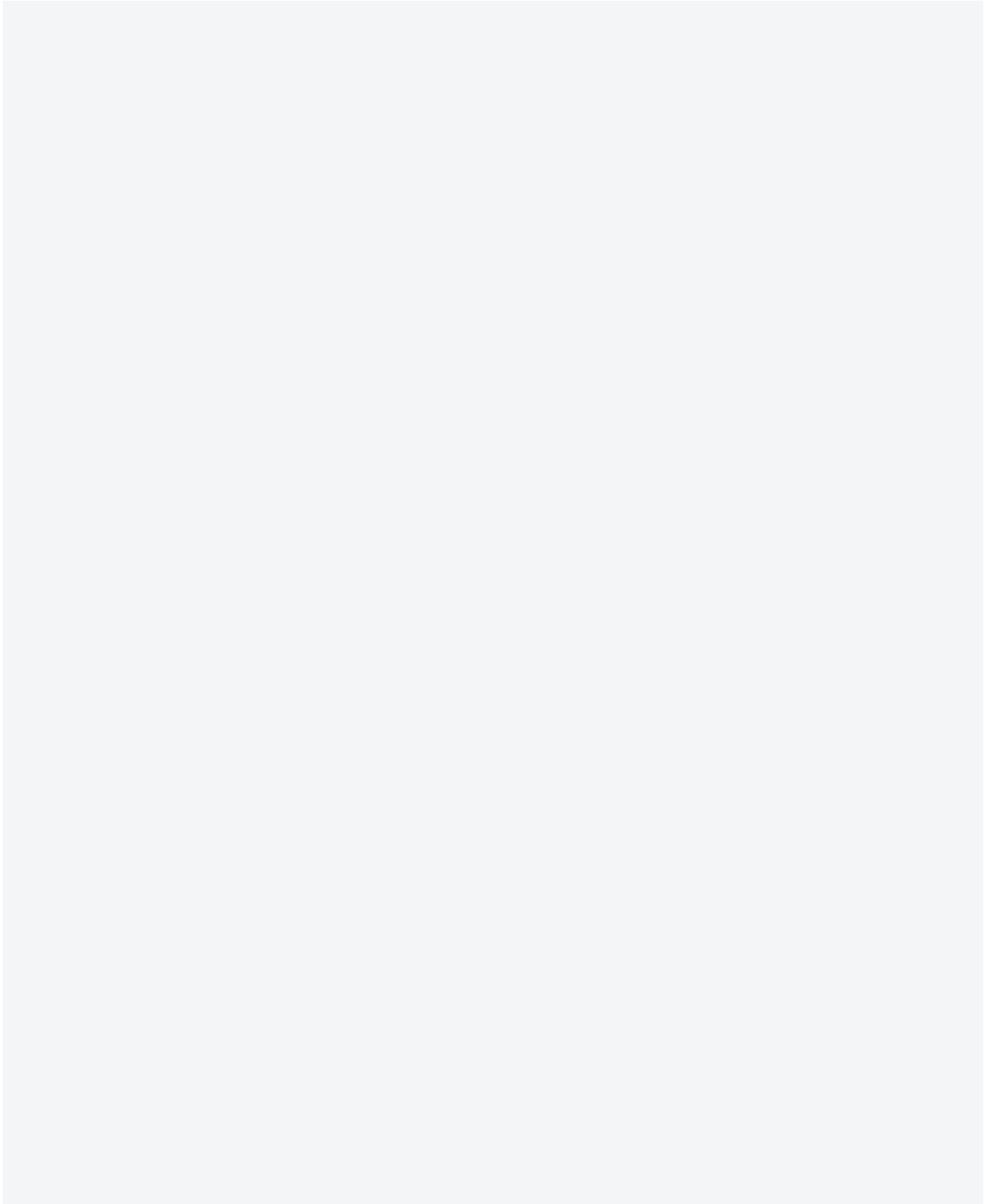
이미 코칭을 활용해 승승장구 하고 있는 많은 코치님들은 이러한 축의 변화를 잘 활용하신 분들입니다.

### 단순히 코칭과 코칭 교육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아닌, 코칭이라는 개념을 분할하거나 다른 무언가와 더해서 새로운 형태의 아이템을 만들어 내며 축을 변화시키는 코치님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고객들과 만날 수 있는 채널을 다각화하며 변화의 축을 만들어내는 코치님들, 기존에 생각지 못했던 타겟을 공략하여 변화의 축을 만드는 코치님들도 계십니다.

고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빠르게 파악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채워줄 수 있는지, 더 효과적인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 코칭 사업의 성장을 위해 빠르게 변화를 시도하고 성장을 이루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방법, 길을 찾고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닌 먼저 행동하고 빠르게 수정/변화하는 것.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코칭의 진짜 힘을 더욱 크게 발휘할 수 있는 시기, 바로 지금입니다. ☺



## zoom in issue



## 코칭하는 설렘

글 이예지(한국코치협회 블로거기자단)

스물세 살, 대학교 졸업을 앞둔 학생입니다.

저는 요즘 뭐 먹고 살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전 첫 설렘을 기억하시나요? 학업을 마무리하고 저런 사람이 어떤 이인지 되돌아보기도 하면서 이것저것 혼자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참 좋을 때를 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네 나이 때가 가장 좋을 때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사회적으로 얽혀있는 여러 관계를 신경 쓸 필요 없이 오로지 저만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기이니깐요.

본격적으로 코칭을 혼자 공부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주변 후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코칭을 시도한 지는 6개월도 되지 않았습니다. 기술적으로 미숙하고, 경험적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코칭을 마주했을 때 첫 느낌, 설렘 그리고 여러 시도를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감정을 이 글을 통해 정리해보려 합니다. 첫 마음을 잃지 않고 꾸준히 즐겁게 코칭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첫 시작, 그 떨림을 떠올리고, 웃음 짓게 만드는 글이었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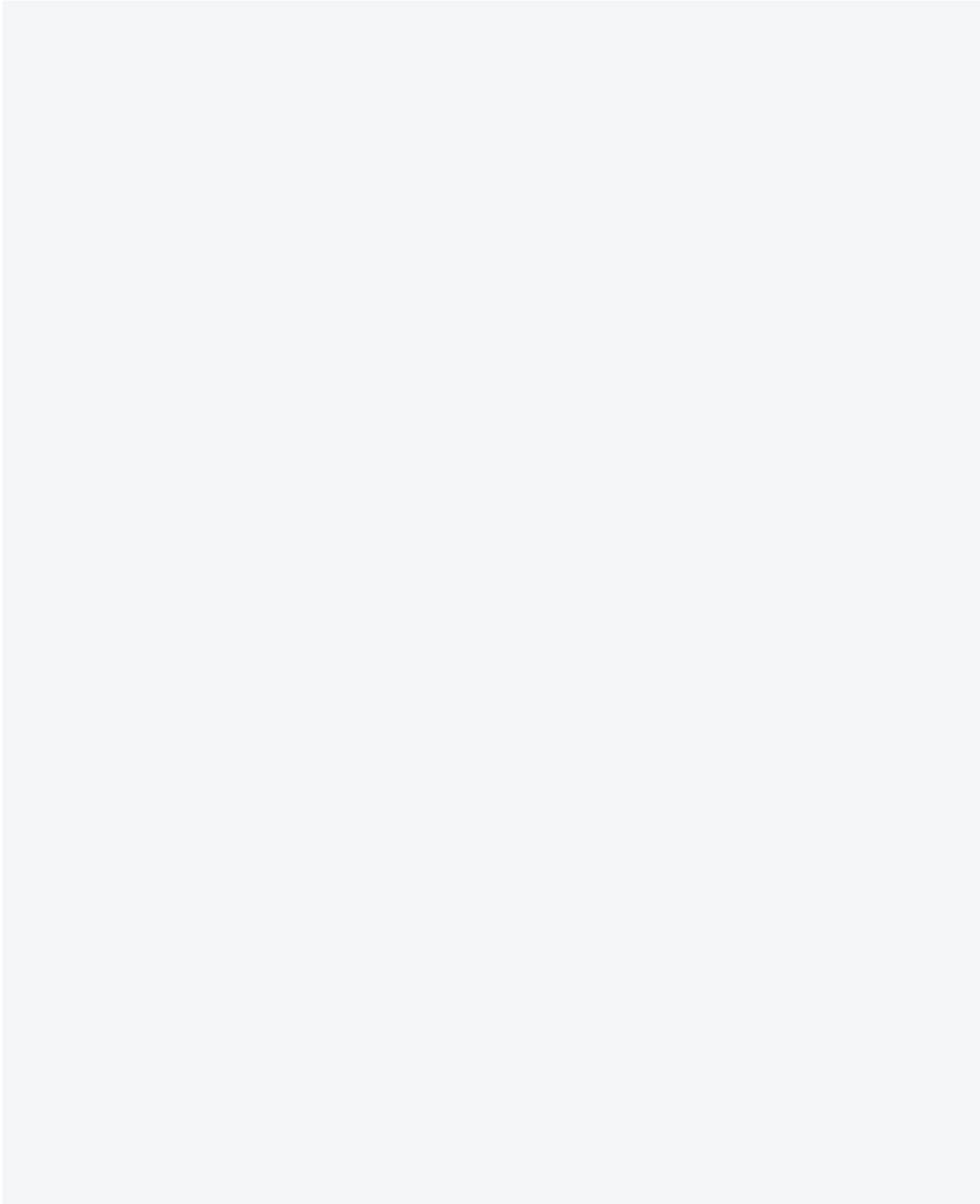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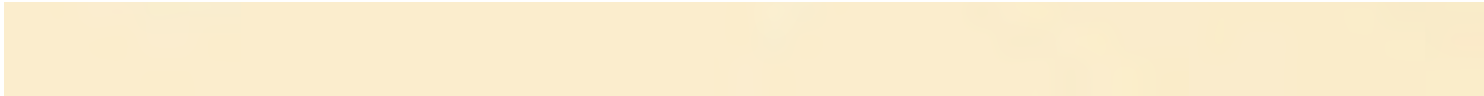
처음에 코칭은 편안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 보는 코치님

과 제가 편안하게 대화를 할 수 있어서입니다. 저는 불안감을 잘 느끼는 사람입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 모른다는 생각에 초조합니다. 들여다보면 상대가 내 일부만을 보고 성급히 판단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숫자나 성과들로 저 자신을 무장하며 살았으니까요. 그때 코치님은 '정돈되지 않아도 좋으니 편안하게 말해도 좋다'라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학교나 전공을 들이밀며 자신을 예쁘게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돈되지 않은 채 영겨있던 제 생각을 짚어가며 하나씩 풀어내는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선생님께 함부로 사람을 재단하지 않는 편안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죠. 편안함을 느끼고 공부를 시작했기까지 제 공부를 도와주겠다는 후배와도 모의 코칭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게 첫 번째 난관은 에고리스, 제 자아를 비워내는 일이었습니다. 상대에게 맞추어가기보다는 자꾸 조연하고 제 경험을 풀어놓으려는 선배 모드로 자꾸 바뀌려고 하더라고요. 학교 이름값에 느끼는 자격지심, 전공을 대하는 자세,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저희가 나누는 주제는 비슷합니다.

저 역시 같은 고민을 먼저 겪어보았기에 조언해주고 싶은 말





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이끌어내고, 함께 눈을 마주치며 공감하는 일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를 얼어붙게 했던 후배의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오늘 언니 이야기 잘 들어. 언니도 그런 고민하고 있었니 신기하다.”

저는 대화를 마무리하며 아차 싶었습니다. 제 어쭙잡은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의 경험을 재단하고 조언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고민을 털어놓을 경우,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 습관이 무의식중에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내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서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으니까요. 마음을 비우고 온전히 상대의 속도에 맞추어 대화를 함께하는 일은 미지의 세계와도 같았습니다. 제가 택한 방법은 현재에 집중하는 일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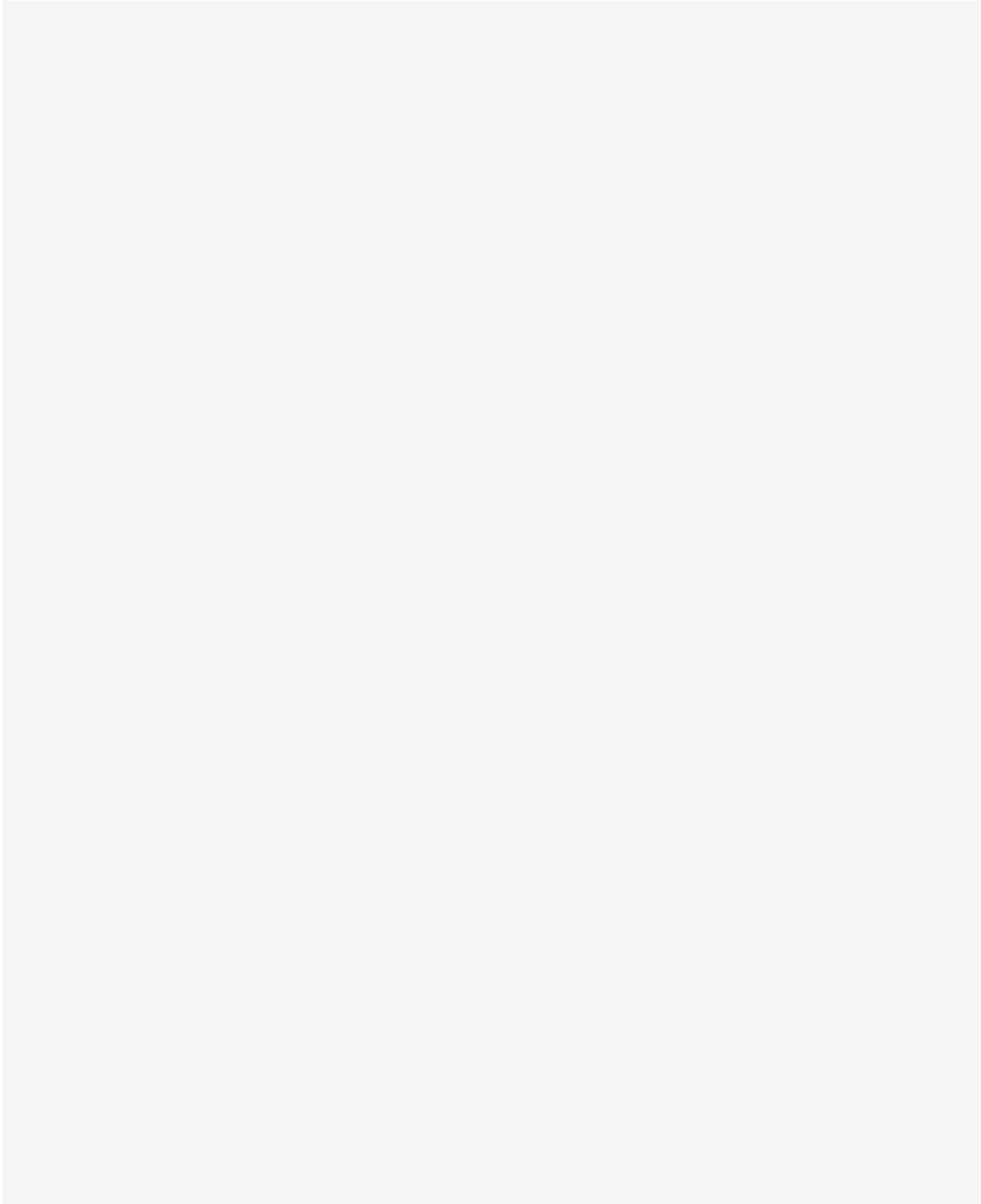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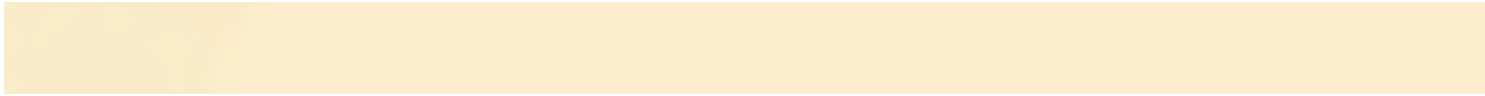
마음 챙김 명상을 통해 호흡을 가다듬고 혼잡한 생각들을 마주 보았습니다. 바쁜 일정을 보내는 와중에도 코칭 세션 앞뒤로는 비워두고 여유로운 마음가짐을 갖고자 노력했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잔잔한 음악을 듣고, 스트레칭을 통해 몸 구석구석 결리는 부분이 없는지 충분히 확인해주었습니다.

대화하다가 마음을 동요하게 하는 주제를 발견할 경우, 종이 귀퉁이에 적어 두었습니다. 제 마음의 동요가 상대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하고 싶었고, 몇 번의 시도 끝에 깨달았습니다. 상대에게 에너지의 흐름을 맞추는 일 못지않게 코칭 세션 전후로 나를 돌보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노력한 결과 5개월 뒤 코칭을 함께 한 후배가 아래와 같은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오늘 대화 즐거웠어. 혼자 끙끙 앓고 있었던 고민을 하나씩 짚어가며 얘기하게 되지는 몰랐어. 언니와의 대화는 항상 생각했던 것 이상이네.”

코칭은 주위 사람들과 저에게 좀더 친절할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대화를 더 잘 이끌어나가고 싶은 마음에 상대를 재촉하지 않는 대신, 지그시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무언가를 배워감에서도 조금해하지 않고, 자신을 중간중간 돌보는 일에 대해서도 깨달았습니다. 언어를 전공하는 학생 특성상 잘하지 못하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기 마련입니다. 코칭 시간 동안 상대의 말을 듣고 제 언어로 다시 표현하는 과정을 여러 번 거치면서 언어를 가지고 노는 즐거움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코칭은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나요? ㉠





farewell 2020

# 2020년 한해를 보내며, 2021년을 앞두고

글, 사진 (사)한국코치협회 이사회 임원

편집 김셋별(홍보위원회 편집국장/KPC인증코치)



## 강용수 회장

2020년은 참 당혹스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2020년을 오롯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마무리 하시는 코치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상황에서도 상당한 배움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비대면 방식의 코칭도 어렵지 않게 해나가는 코치님들을 보며 대단하고 또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저 스스로도 더 발전하는 새로운 해를 맞이하겠습니다. 2021년에도 코칭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 이정민 이사 / 공익코칭위원장

그동안 대면코칭 위주로 진행되었던 공익코칭프로젝트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축소되거나,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면서 참여하는 코치님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동시에 추진되는 프로젝트들이 무사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신 코치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에는 공익코칭의 수혜를 받는 대상자를 점차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코치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외계층을 돕는다는 차원을 뛰어넘어 국가차원의 중요한 이슈들에 코치들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적극적인 고민하겠습니다.



## 안앤지 이사 / 역량강화위원장

설렘으로 2020년 새해를 시작했으나 전 세계적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온 지구가 하나의 유기체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상황이 어렵기는 하지만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온라인으로 공간적 거리가 없어지고 더 가까워지고 더 많은 소통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길을 찾는 한해였습니다.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지라도 서로 협력하고 서로를 돌아보는 긍휼의 마음으로 극복해 나간다면 어려움 속에도 꽃은 또 아름답게 피어나겠지요. 2021년이 모든 회원들이 새로운 변화에 빨리 적응하고 코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원년이 되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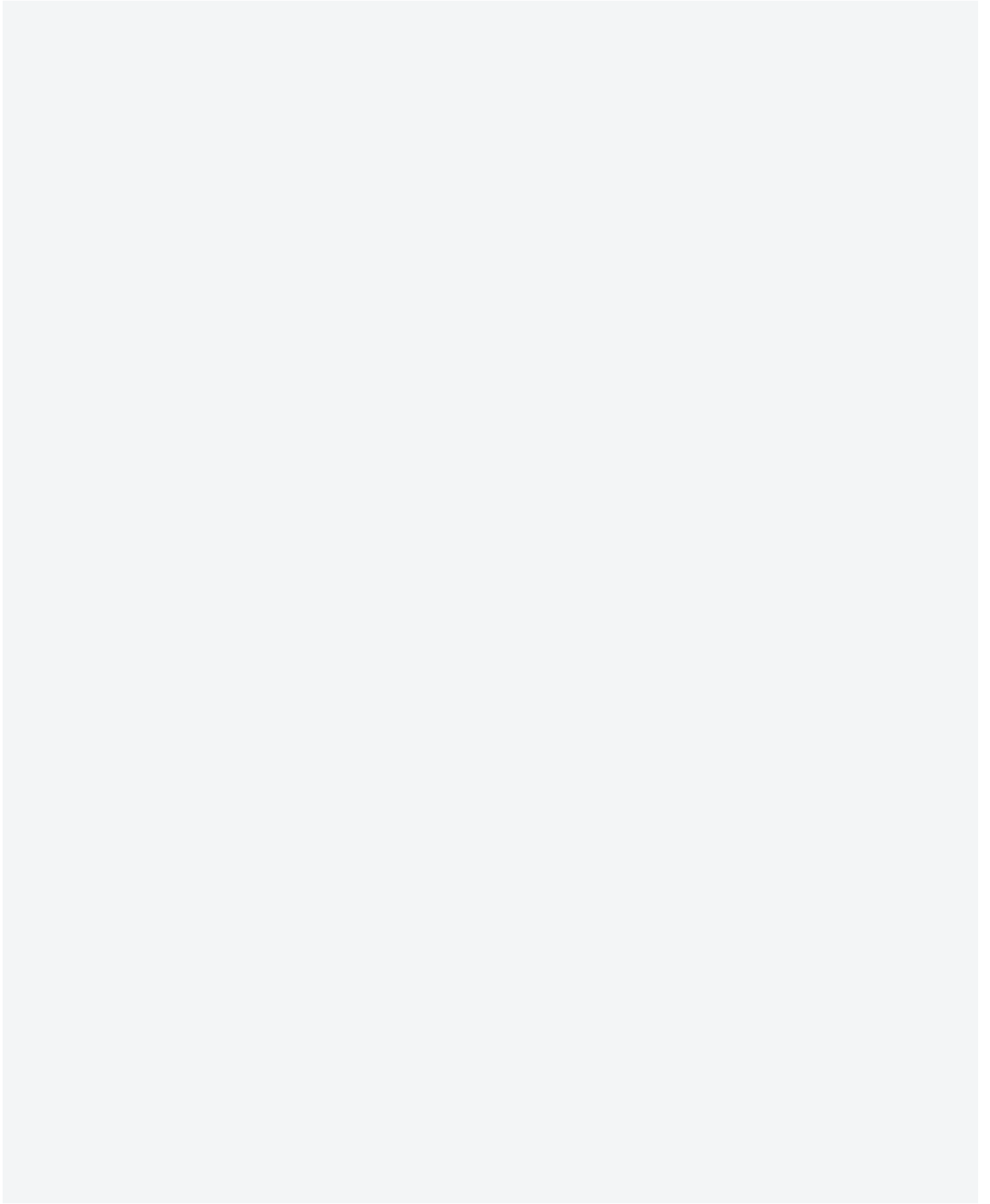
## 김영헌부회장 / 기획운영위원장 & 대외교육협력위원장

코치협회 기획운영위원회와 대외및교육기관협력위원회를 맡고 있는 김영헌 부회장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 펜데믹이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좀 아쉽지만 온라인으로 적절히 활동했다고 생각합니다. 코치협회 미션 비전 핵심가치를 재설정하고 내년에는 코칭문화 확산과 코치 일자리 창출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기존 MOU체결 대외기관과 협력방안을 추진하고 더불어 전략적 차원에서 새로운 MOU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차미애 부회장 / 인증위원장

안녕하세요 차미애 부회장입니다. 2020년은 개인적으로는 최고의 해였습니다. 힘들었던 상황들이 모두 잘 해결되었고 새로운 가족이 늘어 행복을 느끼며 감사했습니다. 또한 회원들께서 믿어주신 덕분에 코치협회에서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영광스러운 기회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공적인 면에서는 최고로 안타까운 한 해이기도 합니다. 남은 2020년은 공적인 면에서도 2021년을 최고의 해로 만들기 위한 첫 과업으로 지혜로운 2020년의 마무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사)코치협회 회원들의 가족과 가정이 항상 건강하고 평안한 가운데 보람으로 이어지는 나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국가공인자격증추진검토위원회  
한민수 위원장**

엔딩이 오기를 누구나 고대하지만, 결국 위드 코로나, 포에버 코로나, 인류가 바이러스와 함께 성장해온 만큼, 코치님들도 많은 아픔과 고통, 변화와 성장이 있을 줄 압니다. 주변에 위로와 격려의 언어로 용기와 사랑을 나누는 2021년이 되기를 저부터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창희 코칭컨퍼런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코칭컨퍼런스위원회의 한창희입니다. 2020년의 코칭컨퍼런스는 온라인 형태로 처음 실시하는 행사 자체의 의미와 함께 제게는 새로운 도전과 성취를 안겨 준 기억에 남을 경험으로 생각합니다. 차별화된 콘텐츠와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기획했지만, 많은 부족함과 아쉬움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석해주신 회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으로 끝나지만, 다 같이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한국 코칭 산업의 더 큰 발전과 코치님들의 더 큰 성취를 위하여 함께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0년을 모든 회원님들이 잘 마무리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혜정 감사**

2020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상상 못할 속도로 세상이 변해가지만 한국코치협회는 열심히 보조를 맞추고 선도해 나가려 애씁니다. 변화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고요히 머물러 2021년을 맞이합니다. 감사로 임명되어 지난 1년을 보냈습니다. 한 해를 점검해 봅니다. 코치협회는 훌륭한 인적자원과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누구든 함께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2021년에도 협력과 상생으로 한국코치협회가 글로벌 인증기관으로 도약하길 꿈꾸어봅니다. 우리의 코와 입을 마스크로 가린 것처럼 침묵과 경청의 시간을 보내고 성숙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철 이사 / 홍보위원장**

코로나19로 인해 다사다난한 2020년을 보낸 우리 코치님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모두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기쁜 소식이 오고 있습니다. 바로 백신이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2021년에는 우리 협회의 주인이신 회원님들, 코칭파트너의 더욱 활발한 소통을 통해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를 올리기 위한 코칭을 열심히 그리고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코치님들도 함께 해 주실거죠? 설레이는 2021년을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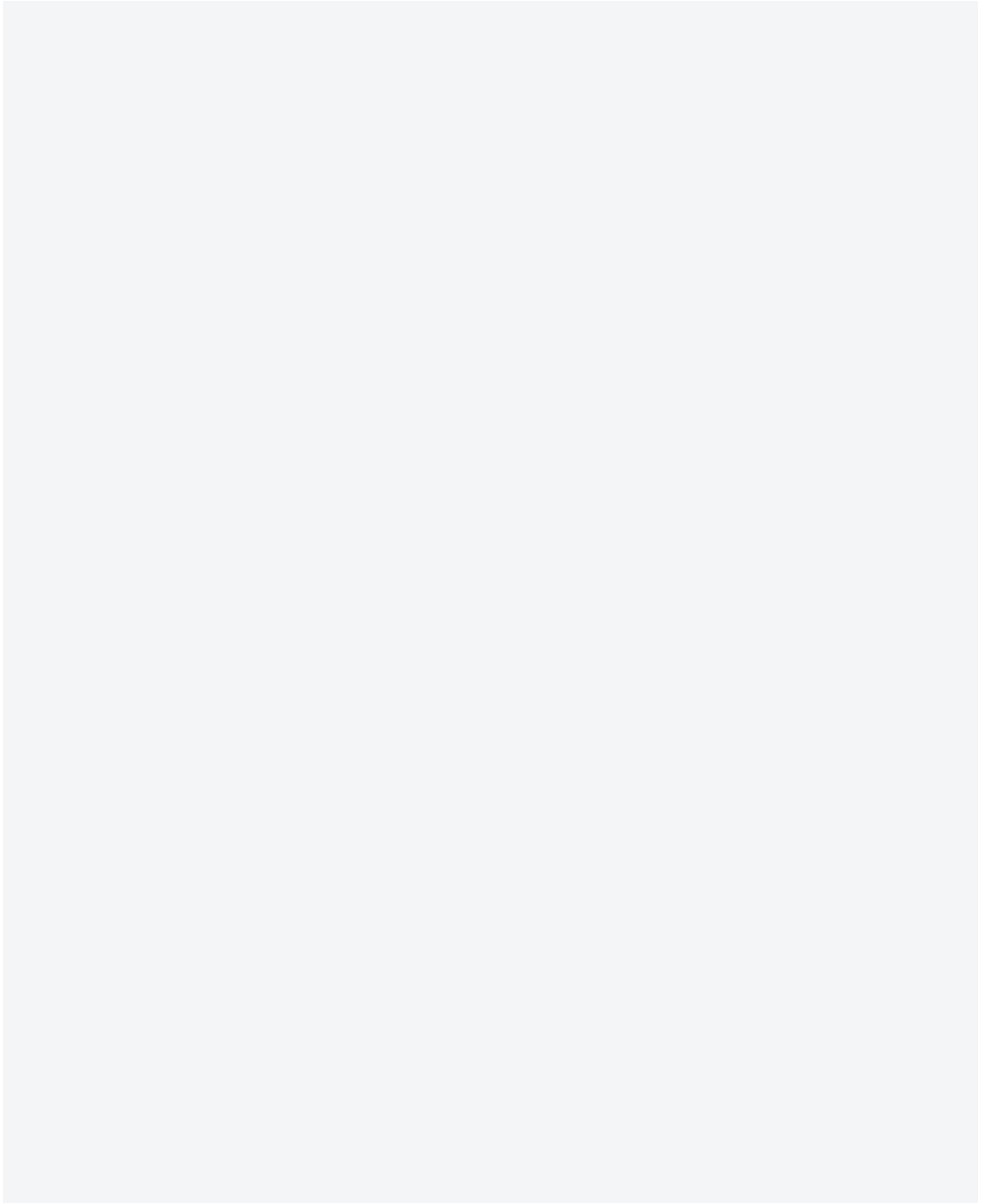
**박중호 이사 /  
기독교코칭센터장**

NLP 기법의 'Neurological Level'에서도 최고의 6단계는 '영성의 단계'입니다. 우리 삶의 환경은 Corona Blue 시대이고, Untact 시대이지만, 우리는 영성코칭의 탁월성으로 경제의 어려움과 감염병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기독교코칭센터가 한국코치협회의 크리스천 회원들과 한국교회, 선교지등을 연결하는 하나의 Platform 역할을 해 나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고 십자가의 비전'을 세울 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눅 2:14)가 임하는 멋진 새해가 기대가 되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열정과 소명이 샘 솟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김형준 감사**

2020년 코로나 19로 인해 협회 임원으로거나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고 아직도 진행 중인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들과 협회의 발전을 위해 임원들과 회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2021년에는 그 동안 당연하다고 여긴 일도 감사한 일로 여기고, '누군가 나서서 해 주겠지'가 아니라 남이 알아 주건 아니건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견지해 나가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들도 자신이 더욱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응원드리며,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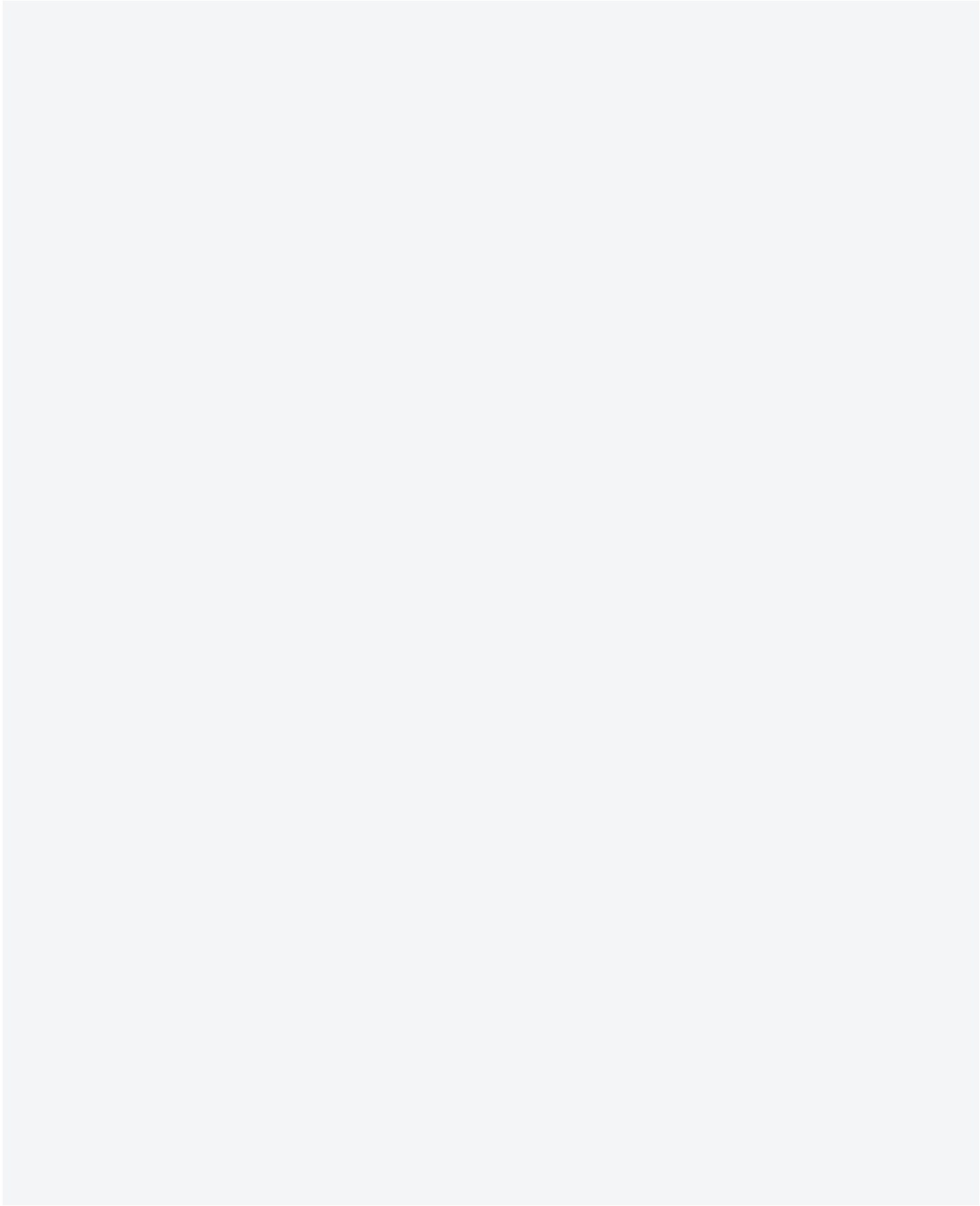
farewell 2020

# 한국코치협회 협회원들의 2021 코치로서의 꿈과 목표

글 (사)한국코치협회 설문참여 협회원

The infographic consists of 18 colorful speech bubbles arranged in a circular pattern, each containing a specific goal or dream of a coach for the year 2021. The goals include:

- kpc취득
- 생생코치
- pcc취득, 코칭프로그램 개발
- 내 주변 사람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코치로 살기!
- 라디오코칭 시작하기
- 코칭 강의 진행하기
- 영혼살리는 코치로 발돋움하기
- NLP Trainer되기
- 여성리더의 꿈을 응원하는 여성리더라이프코치
- 여성주의 코칭 연구소, 도약의 한해로!
- 함께 행복한 꿈을 이루는 꽃피우는 루핀코치되기
- 유료코칭 시간 50시간 넘기기
- 좀 더 코치다운 삶으로 다가가기
- 무료코칭봉사에 참여하기
- 코치다움과 코칭다움 바로알기
- 인생디자인 전문코치로 거듭나기 위해 역량을 키우고 싶습니다
- 재능기부 코칭 200시간 넘기기
- 100명 이상 코칭고객 만나보기
- 코칭관련 도서 5권 이상 읽고 공부하기
- 내 힘으로 코칭고객 만들기
- 코칭 교육 FT자격 따기
- KAC취득하기
- 프리랜서 CEO 1인 기업가로서 "CEO책쓰기코치"라는 포지션을 각인시키는 것







생활속에서 자연스러운 코칭언어 사용하기

세대별 코치님들에게 유료 코칭 받아보기

나만의 코칭프로그램 기획해보기

코칭프로그램 제안서 작성하여 스스로 제안해보기

코칭 관련 책 원고 작성하기

코치협회에서 진행하는 이벤트 혹은 프로그램에 참여해보기

코칭에 관한 나만의 정의를 확립해보기

코칭에 관한 글을 작성하여 SNS에 게재하기

코칭에 관해 작성된 외국논문을 찾아 읽으며 성장하기

KSC코치님들의 코칭을 반드시 체험해보기

코칭 비즈니스 모델 수립&실행, 안정화하기

주기적으로 셀프코칭하여 스스로를 점검하기

유료코칭에 걸맞는 코칭스킬 기르기

코칭을 알리는 목적으로 최측근 30명에게 무료 코칭 진행하기

코칭과 함께 인생 이모작 힘차게 도약!

주변 가까운 사람들에게 코칭에 관해 자연스럽게 알릴 방법 찾기

코칭으로 안정적인 수입창출하기

강의보다 코칭을 더 많이 하는 한해가 되자!

코칭에 관련해 함께 성장할 스터디그룹 만들어 운영하기

계획보다 실천을 우선하는 코치

아이들 교육에 코칭을 활용하여 유의미한 결과얻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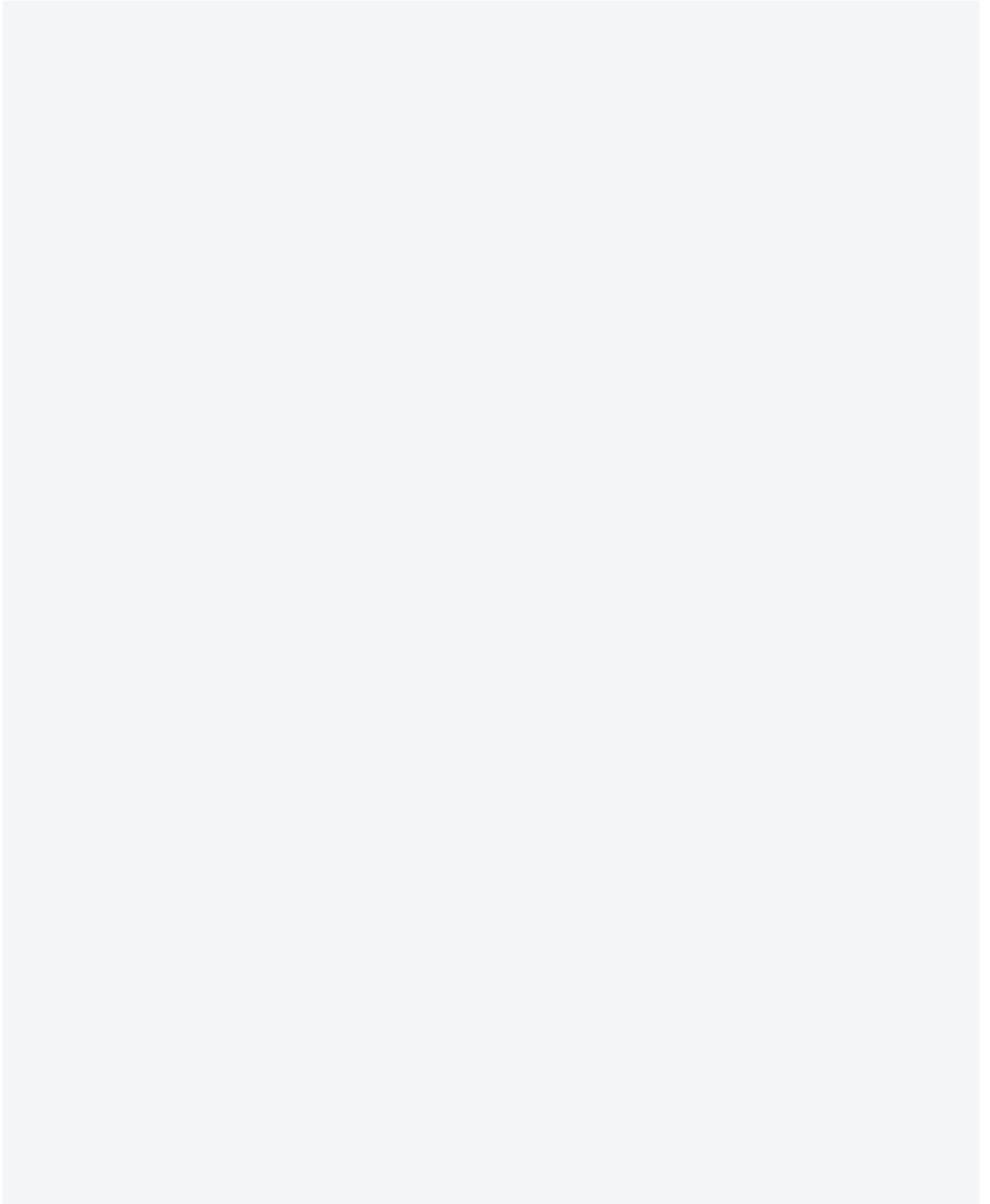
나만의 코치다움을 만들고 이루는 한 해를 만들자

사내 직원들과 코칭시간 갖기

2년 한 해동안은 코칭 기록을 잘 기록하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진행중인 일에 코칭을 접목하여 새로운 영역을 찾고 싶습니다.

2022년에 후회되지 않는 프로의 모습과 역량을 갖추는 한 해를 만들자



zoom in issue

# 나눔 가치 & 감정전환(ETC)코칭의 만남

글 진선임(한국커리어학습코칭연구소연구원 / KAC 인증코치)

반갑습니다.

마을에서 공익활동을 하며 행복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복닥복닥 나눔의 가치를 함께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마을코치 첫인사 드립니다. 퍼실리테이터로 활동하면서 끊임없이 샘솟는 에너지에 더 이상 확장되지 않는 부족함을 느끼던 어느 날 '변화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코칭'이라는 분야로 성장학습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송실대 교육대학원 커리어학습코칭학과에서 처음 접한 코칭과 프로세스는 새로운 학습에 대한 기대보다는 낯설음으로 다가왔고 코칭 스킬을 목표로 학습하다 보니 마음속 혼돈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코칭 목표에서의 방향 오류와 코칭 비전을 찾지 못하고 다운되어 있던 제게 '감정전환코칭(Emotional Transformative Change)'이라는 세션은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듯 시원함을 선사해 주었어요. 코칭을 천천히 바라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포근해진 것 같아요.

## '감정도 존재다'

코칭 스킬도 필요하지만 존재에 집중하여 고객의 감정을 인정해주는 것과 질문에 진심의 마음을 담아 의미를 묻는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지와 격려로 내재되어 있는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소통 원리에 선한 의도가 숨어 있는 코칭~!!! 정말 매력 있는 것 같아요.

## '마을코치로서의 비전'

KAC 과정 준비 중에 친구의 고민에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눈 뒤 일이 해결했다고 전해 왔을 때 대화한 경험들을 회상해보니 누군가에게 나눔의 선한 영향력이 전해진 것 같아 코칭을 만나길 참 좋았다는 생각이

이 들었어요. 최근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마을활동가와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가치를 나누는 마을활동을 하면서 타인과 서로 다른 의견들로 인해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지속가능한 마을 활동을 하는 것이 참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직은 많이 부족한 코치지만 감정 코칭을 베이스로 마을활동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지, 느끼는 힘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등을 질문하면서 마을활동을 하는 리더들이 코칭을 필요로 한다는 알아차림을 느끼게 되던 그날 퍼스널 브랜딩의 발견, 마을코치로서 비전을 찾게 되었어요.

## '코칭과의 감사한 만남'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나의 운명이었기에 ~~~~~ ♪♪

마을활동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코칭으로 제 삶의 변화와 함께 찾아온 성장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인연이라는 관계와 생각지 못했던 기분 좋은 풍성한 선물들로 감사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는 코칭을 아는 사람이 없었고 아직 우리 마을에도 코칭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최근 인연이 된 파트너 코치님들과 협력하여 오거나이저로 진정성 있는 코칭 펌도 만들어보고 싶어요. 촉촉이 내린 가을비가 며칠 전까지 알록달록 풍성했던 가을을 보내고 곧 겨울 소식을 전해줄 것 같은 단비처럼 고객과 파트너십을 갖고 마중물로서 물 한바가지만 부어주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게 돕는 좀더 성숙한 선한영향력 있는 마을 전문코치로 성장하여 가까운 미래에 멋진 코치의 모습으로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